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7호
2026년 8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효숙 편집장: 신복례

18대 미주동창회, 2차년도 핵심 사업은 ‘나눔 실천’

황효숙 회장이 이끄는 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2차년도 핵심 사업으로 ‘나눔’을 선정하고 동창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18대 미주동창회장단은 지난 7월 30일 미네소타주 노스옥스(North Oaks)에 위치한 트리아 레스토랑(Tria Restaurant)에서 제35차 평의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2차년도 운영 방향과 중점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효숙 회장은 이 자리에서 “1차년도에는 조직체계 강화와 IT 인프라의 대폭 개선, ISP 장학 프로그램, 다양한 Brain Network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과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며 “당초 모금 목표액은 5,000달러였으나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목표액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만3,200달러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한인사회를 넘어 글로벌 공동체의 어려움에도 함께하는 사회공헌 단체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며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번 성금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에 따르면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는 국내외 재난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



2025년 홈커밍데이 서울대 캠퍼스를 방문한 미주 동문들이 모교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대 정문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창회 울타리 넘어 지역사회 공헌·글로벌 나눔
남가주 총동창회, 베네수엘라 지진 모금 캠페인
동문 참여로 1만 3200달러 모아 유니세프 전달

위한 젊은 동문 글로벌 창업 장려·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2차년도에는 미주동창회 설립 취지 중 하나인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지역사회 봉사,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긴급 재난 구호 지원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나눔 프로그램을 정립해 동문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지난 6월 평의원회에서 새롭게 나눔위원장으로 선임된 필라델피아 이성숙(가정대 74) 동문을 소개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당부했다.

이러한 나눔 정신은 각 지역 동창회의 활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양수진)는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동문들을 대상으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구호 성금 1만3,200달러를 전달했다. 양수진 회장은 “대규모 지진으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메일

를 위해 5,000달러를 기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여 달러의 성금을 모아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했다.



18대 미주동창회장단은 지난 7월 30일 모임에서 2차년도 운영 방향과 중점 사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 2차년도를 함께 이끌어갈 이소란(미대 96) 총무국장이 참석해 고문단과 임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10월 18일 홈커밍데이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8일 관악캠퍼스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2026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서울대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80년간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 표어를 발표했으며 기념 음악회와 특별전시회, 동문 바둑 축제, 축하영상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왔다. 이같은 기념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10월 18일 홈커밍데이는 세계 각지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동문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월 18일 홈커밍데이는 오전 11시 참가 등록과 행운권 접수로 시작된다. 이날은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문과 가족들이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도록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중앙도서관 등이 개방된다. 또한 공식 행사에 앞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미주 동문들을 호암교수회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모교를 아끼고 성원해 온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미주동창회는 이번 홈커밍데이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줄 4박 5일 일정의 특별한 일본 온천 여행을 마련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제주도 힐링 여행에 이은 힐링 2탄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북동부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역을 찾는다. 따뜻한 온천욕과 제철 미식으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동문들과 함께 곱게 물든 단풍 숲길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행은 예년과 달리 홈커밍데이 직전인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 문의와 신청은 남가주 최진석(법대 64) 동문에게 하면 된다.

▶문의: (213) 321-6428
(관계기사=3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47-5428 | Email: contact@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립 이끈 조완규 전 총장 별세

한국 기초생물학 개척·과학 기술 진흥에 헌신
교육부 장관·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 역임

현미경이 사실상 유일한 연구 장비였던 6·25전쟁 직후의 실험실에서 출발해 포유동물 난자 성숙의 원리를 밝히고,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길을 연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 7월 13일 향년 9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교육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연구와 교육, 과학 행정 전반에 걸쳐 한국 생명과학의 기틀을 세웠다.

특히 미주 동문들에게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립을 이끈 숨은 주역으로 깊이 기억되고 있다. 고 조 총장은 1990년 10월 12일 서울대 개교 44주년 기념식에 남가주, 뉴욕, 시카고,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 동창회장단 5명을 초청해 미주동창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창립의 산과 역할을 했다. 이어 이듬해인 1991년 6월 1일 버지니아주 맥린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아낌없는 축하와 성원을 보냈다.

192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조 전 총장은 1952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1956년과 1969년에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7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 포유동물의 난자 성숙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기전을 규명했다. 난자와 배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고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새로운 배양법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총장은 교육·행정가로서 후학 양성과 대학 안정화를 이끌었다. 고인의 호를 따 ‘설랑(雪浪) 문하생’으로 불리는 제자들은 현재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고인은 서울대에서 제18대 총장(1987~1991)을 지내면서 학칙에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된 학생 1300여 명을 복학시키는 등 혼란을 수습해 ‘소방수 총장’으로 불렸다. 1992년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 대학 자율화 및 교육 재정 확보에 힘썼다.

고인은 한국 과학계의 기틀을 닦은 거목이다. 1994년 한림원 창립과 함께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미주동창회 창립을 이끌어준 고인의 발자취를 기리며 서울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을 보내 깊은 애도를 표했다. 고인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시카고 소진문 동문도 화환을 보냈다.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다양한 학술 활동과 외국 한림원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후진국 어린이 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한국 유치에 성공하고, 한국후원회 이사장을 맡아 세계적인 백신 개발 연구를 지원했다. 청조근정훈장 1급(1993년),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1급(2003년) 등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생명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조 전 총장은 마지막까지 한국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을 염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노벨과

학상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다”며 “뛰어난 학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노벨상을 받게 하는 게 평생의 목적이자 소원”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룬 업적에 관해서는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 생각했다. 인생에 후회 없이 걸어왔을 뿐”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유족으로는 아들 진원(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명예교수), 진완(한국금융산업연구원장)씨와 딸 인숙씨, 사위 윤병우(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씨가 있다. 장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남긴 업적을 기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葬)’으로 엄수됐다.

“미주동창회는 조완규 총장님의 숨은 지원이 빛어낸 결실”

소진문 동문이 전해 온 미주동창회 창립 과정

시카고 동창회장을 지낸 소진문(치대 58) 동문이 고(故)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조 전 총장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립에 지대한 기여를 한 숨은 주역임을 기리는 추모의 글을 보내왔다.

소진문 동문은 “지난해 9월 서울 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뵈고 답소를 나누었으며, 지난 4월 통화 당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했건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다”며 “조 전 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 동문은 “1990년 1월 조 총장님께서 시카고를 방문하셨을 당시 고 배영섭 시카고 동창회장과 함께 공방에서 영접하고 환영회를 개최하며 미주동창회 설립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건의한 적이 있다”며 “총장님께서 그 뜻을 잊지 않으시고 그해 10월 개교기념일 행사에 5개 지역 동창회장 부부를 초청해 주셨고, 그것이 미주동창회가 출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창립 당시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라는 명칭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진문 동문이 보내준 2002년 6월28일 자 동창회보 복사본에는 당시의 창립과정과 동기가

1990년 개교 44주년 기념식에

미주 5개 지역 동창회장 초청

서울대 미주동창회 필요성 역설

창립총회도 참석, 아낌없는 성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고(故) 박운수(문리대 48) 초대 회장이 기고한 글 《SNUAA-USA의 창립 經過와 提言》은 설립 당시의 역동적인 순간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박 초대 회장은 “서울대학교 개교 44주년 기념식에 조완규 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대도시의 동창회장단 5명이 참석했다”며 “당시 한국 동창회 본부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돌아왔다”고 술회했다.

이후 대표단은 귀국 직후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서울에 함께간 손승용(남가주), 진병일(뉴욕), 배영섭(시카고), 임승태(샌프란시스코), 박운수(워싱턴DC) 등 각 지역 동창회장 5명으로 구성되었다.

마침내 창립총회는 1991년 6월 1



소진문(왼쪽) 동문이 2025년 9월 서울 방문 당시 조완규 전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일 오후 6시 30분, 버지니아주 맥린에 소재한 셰라톤 프리미어(Sheraton Premiere) 호텔에서 조완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박 초대 회장이 회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통해 당시의 감격을 엿볼 수 있다.

“미 전역에 산재한 동문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겠다는 일념으로 창립총회에 모여든 워싱턴, 남가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지의 동문 50여 명이 보여준 뜨거운 열성이 새삼 떠오릅니다. 창립총회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주 각지의 동문 간 친목 도모는 물론, 1986년 서울대 개교 40주년을 맞아 착수된 발전기금 조성 사업에 미주 동문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이렇

듯 원대한 뜻을 품게 된 것은, 고국을 떠나 미국 주류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단순한 친목 단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 및 복지 증진에 공헌하자는 숭고한 이념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소진문 동문은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창립 과정을 전하면서 “고 조완규 총장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미주동창회 탄생과 관련한 총장님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주동창회의 태동 과정과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교 방문하고 가을 일본 온천 여행도 함께 해요”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오는 10월 18일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이에 모교를 방문하는 동문들을 위해 특별한 일본 온천 여행을 준비했다.

일본 동북부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역을 방문하는 이번 4박 5일 여행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산과 바다가 선사하는 계절 미식을 즐기며, 아름다운 삼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고품격 힐링 여정이다.

이번 여행을 주선한 최진석(법대

선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 2022년 6월 남가주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가한 동문 30여 명을 이끌고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년 여행을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홈커밍데이에 참가한 동문 17명과 함께 북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최 동문은 “제주·강원·동해 5박 6일 여행도 했고 단풍과 온천을 테마로 한 일본의 북알프스 여행도 했는데 당시 여행 준비를 위해 개설한 단체 카톡방이 지금도 열려 있을 만큼 동문들

미주동창회, 4박 5일 홈커밍 힐링 여행 준비 10월 12일~16일 온천·미식 즐기며 우정 나누

64) 동문은 “홈커밍데이를 맞아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동문들이 함께 여행하며 더욱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여행은 산과 바다 그리고 붉게 물든 단풍과 따뜻한 온천이 어우러진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3대 삼림욕 숲 중 하나인 하구로산의 울창한 삼나무 참배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며 “운치있는 소도시에서 맛있는 음식과 온천을 함께 즐기며 동문들과 잊지 못할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동문이 동문 단체여행을 주

과 함께 한 여행의 여운이 너무 좋았다”며 “이번 야마가타 여행도 단독방이 만들어져 동문들과 제반 사항을 의논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동문은 “현재까지 24명의 동문이 참가를 확정했다”며 “더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 멋지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마가타 여행은 10월 18일 홈커밍데이에 앞서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열리며 10월 12일 아침 인천공항에 모여 출발한다. 참가비용은 왕복 항공료 포함 1인당 210만원(1460달러)이다. 참가 문의는 최진석 동문(213-321-6428)에게 하면 된다.

일본 소도시 여행, 야마가타 쇼나이 5 일			
여행기간 : 2026 년 10 월 12 일 ~ 16 일 (월 - 금요일, 4 박 5 일)			
날짜	시간	일 정	식사
제 1 일	09:35	인천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OZ152)	중: 현지식 석: 호텔식
	11:45	센다이 공항 도착 일본 최대 홍화(紅花) 산지 카호쿠(河北) 약선(藥膳)요리 점심식사 전설의 사진가 도몬 겐(土門拳) 사진 미술관 감상	
		숙박 : 초카이 온천 유리리 호텔(遊樂里) 또는 동급	
제 2 일	전일	동북지방의 작은 교토 사카타(酒田) 탐방 대지주 훈마 가문의 별장 정원 카쿠부엔(鶴舞園) 감상 일본 국민드라마 오싱의 무대인 산교창고와 마을 거리 산책 무희 마이코(舞妓) 전통 공연과 미인화 감상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숙박 : 초카이 온천 유리리 호텔(遊樂里) 또는 동급	
제 3 일	전일	초카이산(鳥海山) 오합목 전망대 단풍과 복류수 폭포 모토타키(元滝) 감상 에메랄드 그린, 신비의 연못, 마루이케사마(丸池様)삼나무길 산책 청어 잡이로 변성한 구아오야마(旧青山) 저택 감상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숙박 : 초카이 온천 유리리 호텔(遊樂里) 또는 동급	
제 4 일	전일	고려의 승려가 창건한 꽃의 사찰, 교쿠센지(玉川寺) 정원 감상 천년 삼나무숲 하구로산(羽黒山) 참배길 산책 (국보 5 층목탑, 삼신합제전) 開湯 1200 년 湯治(탕치)온천 히지오리 온천(肘折温泉) 숙박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숙박 : 히지오리 온천 칸게쓰(觀月) 료칸 또는 동급	
제 5 일	12:45 15:10	공항으로 이동 센다이 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OZ151) 인천공항 도착	조: 호텔식 중: 기내식
* 위의 일정은 날씨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약 210 만원 (성인 1 명 기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Noblese Oblige

따뜻한 나눔으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재난 및 긴급 구호

| 지역사회 봉사

|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 기타 공익성이 인정되는사업

CARE

따뜻한 배려

COMMUNITY

함께하는 공동체

CONNECTION

이어지는 나눔



나눔으로 이어지는
미주동창회

Hand illustrations by Storyset

CONTACT

회장 황효숙

651-308-0796 | sook@nano-dyne.com

나눔 위원장 이성숙

610-417-4789 | susyhong19@gmail.com

실리콘밸리의 낭만, 밴드 'Eskape' 리더 김영훈(공대 88)

“한 달에 한 번 공연, 바쁜 일상 속 놀이터예요”

윤정아 편집위원이 만난 실리콘밸리 사람들

한 기술의 요람 속에서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는 건조하고, 때로는 숨가쁘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하고도 뜨거운 ‘탈출구’가 있다. 바로 직장인 밴드 ‘Eskape’. Eskape는 단순히 악기를 다루는 동호회를 넘어선다. 이곳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음악이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모여 서로의 삶을 다독이는 쉼터다. 모임의 리더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김영훈을 만나, 그가 지난 10년간 일궈온 음악과 삶의 궤적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의 음악 인생은 중학교 졸업 무렵, 친구가 건네준 카세트테이프와 정성스러운 손편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테이프를 타고 흐르던 락 음악의 강렬한 비트는 소년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단대부고 시절, LA에서 전학 온 드럼치는 친구의 권유는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밴드 활동은 그에게 공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짜릿함을 선사했다. 당시 선생님들조차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음악도 한다”며 응원을 보냈을 만큼, 그는 학업과 음악 사이의 균형을 즐길 줄 아는 학생이었다.

88학번으로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10년여 동안 서울대에서 연구에 몰두했고, 그곳에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만났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교수를 꿈꿨던 청년은 삼성종합기술원을 거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미국식 자율적 근무 문화를 접한 그는 굳이 교수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으로서 치열하게 일하고 남은 시간에 밀도 있게 취미를 즐기는 삶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 웨스턴 디지털을 거쳐 현재의 애플에 이르기까지, 그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단단하게 다져왔다.

삼성종합기술원 시절에도 직접 밴드 동호회를 만들 만큼 열정적이었던 그는 실리콘밸리의 클래식 기타 동호회인 Eskape에 합류하였고, 2014년 모임의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일년에 한 번 공연을 하는 대신 매달 무조건 악기를 들고 모여 정기 공연을 하는 ‘오픈 마이크 나이트(오마나)’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참여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느 달의 공연에는 관객이 단 1~2명뿐일 때도 있었다. 김영훈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허탈함이 몰려올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묵묵히 결을 지켜 준 몇몇 멤버들의 열정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초기의 미미했던 움직임은 이제 시스템이 80% 이상 갖춰진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현재 등록된 멤버만 150여 명, 매달 30~40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김영훈은 스스로 리더 타입이 아니라고 겸손해하지만, 그가 고수해 온 ‘사심과 미니멀리즘’이라는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창한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음악을 하고 놀 수 있는 판을 유지하겠다는 솔직한 사심에서 출발했죠.”

판이 깨지지 않도록 외부의 공연 제안을 필터링하고, 멤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던 미니멀리즘 운영 방식이 이제는 멤버들 스스



실리콘밸리의 직장인 밴드 'Eskape'를 이끌고 있는 김영훈 동문이 공연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 거쳐 애플 베테랑 엔지니어로 2014년 가입한 클래식 기타 동호회 Eskape 10년 만에 등록 멤버 150명 밴드 모임으로

로 열정을 불태우는 문화로 정착했다.

매일 일정한 궤도를 도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Eskape의 ‘오픈 마이크 나이트’는 그를 비롯한 멤버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텐션을 선사한다. 리허설 무대에서 여러 악기를 조율할 때의 그 팽팽한 긴장감, 조명이 켜지고 첫 음이 터져 나올 때의 전율. 프로 뮤지션이 아니기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아마추어적인 순수함이 주는 해방감은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하나씩 만들어준다. 그리고 무대가 끝난 후 함께 고생한 멤버들과 나누는 시원한 맥주 한 잔과 뒤풀이, 그 사소한 대화들이 모여 또 한 달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해 준다.

Eskape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강요 없는 ‘자정작용’의 미학이다. “일반적인 밴드는 고정된 멤버 4~5명이 매주 모여야 하잖아요. 한 명만 바쁘거나 사정이 생겨도 전체 연습이 멈추고, 그러다 보면 미안함과 서운함이 쌓여 팀이 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Eskape는 ‘헤쳐 모여’ 방식의 유연한 플랫폼 구조를 택했습니다.”

Eskape에서는 매 공연마다 연주하고 싶은 곡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그렇게 선정된 곡의 리더가 보컬,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세션을 리쿠르팅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매칭되어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구성된다. 이번 달에 시간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에 여유가 생기면 두세 곡에 동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철저하게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존중하

는 구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연습이 부족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로 누군가를 강제로 배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스템이 스스로 걸러낸다는 점입니다. 연습을 안 해 오면 무대 위에서 본인이 가장 부끄럽고 재미가 없거든요. ‘아,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 와야겠다’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강요하지 않아도 시스템과 무대라는 공간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어른들의 건강한 놀이터가 가진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skape의 무대 뒤편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첫발을 내디딘 2000년대생 젊은이와, 미국 이민 생활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50~60대 중년이 나란히 서서 오직 ‘뮤지션

대 뮤지션’으로 뜨거운 음악적 교감을 주고 받는다.

“미국에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대개 교회나 성당, 혹은 학연 모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대개 나이대별로 전도회나 소모임이 나뉘기 마련이죠. 나이와 경력, 직급의 장벽을 완벽하게 허물고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단연컨대 음악적 플랫폼밖에 없습니다.”

그의 두 아들 또한 트럼펫과 드럼을 다루며 밴드 활동을 통해 성장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강력한 유산을 물려준 셈이다. 그의 시선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넘어 미래로 향한다. 언젠가 영화 ‘스쿨 오브 락(School of Rock)’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밴드를 하는 짜릿함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음악을 통한 진정한 소통과 해방감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그의 말에 진심이 묻어났다.

인터뷰 내내 김영훈은 자신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며 낮췄다. 하지만 그의 투박한 진심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에게 있어 Eskape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물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에게 Eskape란 일상 속의 ‘탈출구’이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가장 즐거운 ‘엑센트’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음악에 대한 순수한 동경 하나로 모여 세대를 아우르고 활력을 나누는 이 공간이, 앞으로 많은 분의 미국 생활에 따뜻한 숨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Eskape는 앞으로도 실리콘밸리라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잠시 닻을 내리고 쉴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도 뜨거운 항구가 되어줄 것이다. 밴드 이름처럼, 그는 오늘도 음악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아름다운 탈출을 꿈꾸고 있다.



직장인 밴드 'Eskape' 멤버들. 매달 30~40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해 공연을 한다.



농생대 배수옥 동문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유홍림 총장(가운데)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오른쪽은 서울대 김철수 교수 기념관 건립을 위해 300만 달러를 기부한 남편 이호상 동문. 오른쪽 사진은 기부 3관왕에 선정되며 유홍림 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받은 한귀희 미대 동문.



유홍림 서울대 총장 남가주 방문, 미주 기부자들과 감사 오찬

지난해와 올해 미주 동문들이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현재까지 500만 달러에 이르면서,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남가주를 방문해 기부자들과 감사 오찬을 가졌다.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친 기부자 만남에서 207만여 달러의 기부금이 모아져 서울대로 전해지게 됐다. 농생대 배수옥(70학번) 동문이 2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수의대 박종수 동문이 수의대 도서관 건축기금 등으로 7만 달러, 한귀희 미대 동문이 4천 달러를 총장단에게 전했다. 농생대 배수옥 동문은 출신 학과인 농화학(현재 생물학과) 인재 육성을 위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앞으로 서울대에서 우수한 여자 교수들과 노벨상 수상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감사 행사에는 서울대에서 유홍림 총장과 정종호 부총장, 김준기 부총장, 이준환 상임이사 등이 박혜영 발전재단 실장, 이미지·강보배·조현진 팀장 등 임직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첫날인 13일 어바인에서 열린 기부자 감사 오찬에는 기부자들로 수의대 박종수·박정운 부부, 박민식·김금옥(사대) 부부, 김영주 교수, 조두연 박사, 공대 한홍택 교수, 노명호·이현숙 부부, 의대 홍수웅·박조미 부부, 조경구 박사, 구철희 박사, 미대 한귀

배수옥 농생대(70학번) 동문 200만 달러 쾌척
박종수 동문 7만 달러, 한귀희 동문도 기부 동참
지난 2년 미주 동문 기부금 500만 달러 돌파

희·김유진 부부 등이 참석했고, 남가주 총동창회에서는 양수진 회장, 이찬용 차기 회장, 신경섭(자연대) 동문, 서울대 미주재단에서는 한종철(치대) 부이사장, 성주경 이사, 김인종 국장이 참가했다.

미대 한귀희 동문(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그동안 서울대에 만만한 기부, 샤인 기부, 천원의 식사 기부 캠페

인에 모두 참여하면서 이날 총장으로 부터 ‘기부 3관왕’을 수여받았다.

둘째 날인 14일 뉴포트 비치에서 열린 배수옥 농대 동문의 200만 달러 기부 자리에는 서울대 김철수 교수 기념관 건립을 위해 300만 달러를 기부한 남편 이호상 동문(문리대)도 참석했다.

유홍림 총장은 감사 인사에서 융합

학문과 세계적인 AI 개발 경쟁에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서울대에 미주 동문들의 지원은 큰 활력소가 된다고, 조국 발전에 선두적 역할을 감당하는 모교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대 발전재단의 미주 지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종철 서울대 미주재단 부이사장은 이만택 이사장을 대신한 감사 인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미주에서 벌써 500만 달러 가까운 기부금이 모아졌다고, 미주재단은 이 같은 미주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전액 모교에 잘 전달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김인종(농생대 74) 미주재단 국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7월 13일 남가주 어바인에서 열린 기부자 감사오찬에 참석한 동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북가주 거주 황만의 사범대학 명예교수 지리교육과에 장학금 50만 달러 쾌척

평생을 지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헌신하고 은퇴 후 북가주에 거주하는 황만의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명예교수(사범대 지리교육과 59)가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글로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 ‘황만의 장학금’ 50만 달러를 쾌척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16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유홍림 총장, 황만의 명예교수와 배우자 황부자 여사, 차남 황정목 씨 등 가족, 유준희 사범대학장, 제자인 이건학 학생부처장과 신정엽 지리교육과 교수 등 주요 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뜻깊은 나눔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노(老) 학자의 평생에 걸친 교육과 연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는 의미를 함

께 나누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며,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교육자·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사와 교수, 환경 전문가, 세계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만의 명예교수는 미국 테네시 주립대에서 지리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지리학 연구와 지리교육, 환경 교육을 융합하며 한국 지리학계의 학문적 지평을 넓힌 학자다.

특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부회장,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지도학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내며 국내 지도학 연구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유홍림 총장과 황만의 사범대학 명예교수가 6월 16일 감사패 증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력하였다.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서울대 북가주총동창회 이사장과 장학위원을 맡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황만의 명예교수는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지리학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학금이 학

생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홍림 총장은 “황만의 명예교수님의 기부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삶의 철학과 제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라며 “교수님의 뜻을 이어 학생들이 세계를 품은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파베르제의 에그 페이퍼웨이트(Egg paper weight), 헨델 램프, 동화 속 마을 같은 독일 로텐부르크 오브 데어 타우버의 풍경과 18세기 '마돈나와 아기예수'.

“종신교수직 내려놓고 1년의 절반은 세계 곳곳으로”

전업 여행가로 인생 2막 연 필라델피아 김영석(음대 74) 동문

로 33년간 봉직하고 은퇴한 지 5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미련 없이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일 년의 절반 가까이를 여행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농담 삼아 “직업이 여행가시네요”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의 여행에 앤틱 컬렉팅(Antique Collecting)이 함께했는지는 몰랐다. 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자그마한 개인 박물관에 발을 들인 듯했다.

거실 바닥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는 19세기 페르시안 카펫이 깔려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뱅킷 램프를 비롯해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헨델 램프와 스투벤 글라스 램프, 아르누보 램프 등 화려한 색감의 조명들이 은은한 빛을 더하고 있었다. 침실과 방에는 19세 말 유행했던 아름다운 조각 장식의 르네상스 리바이벌 침대와 장식장 등 고풍스런 목가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방마다 장식장과 벽 선반들을 가득 채운 소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독일 중세 도시의 정취를 담은 로텐부르크 오브 데어 타우버(Rothenburg ob der Tauber) 미니어처와 러시아 황실의 전설적인 보석 명장 파베르제의 공예품인 달걀과 보석함, 비록 복제품이지만 루이14세 시대 베르사유 궁전의 인테리어를 주도한 샤를르 르 브룅이 디자인한 170년이 넘는 태피스트리는 공간에 특별한 품격을 더했다.

19세기 후반 미국 어린이들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식 저금통 매카니컬 뱅크와 1920년대 제작된 아이브스(Ives)사의 No. 3240 전기 기관차 모형 장난감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18세기 비엔나 지도의 오리지널 판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17세기 예수 목각상, 19세기 프랑스 귀족 저택에 놓였을 법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금색 도금 벽시계, 이탈리아 아이콘(성화) 등이 곳곳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었다.

저마다의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앤틱 소품들은 김영석 동문의 흥미로운 배경 설명이 더해지며 하나하나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덧붙이자면, 파베르제의 달걀은 사진을 찍어 AI에게 물어본 결과 진품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파베르제의 황실 달걀은 러시

아 로마노프 황실의 의뢰를 받아 부활절 선물로 제작된 50개의 작품을 일컫는데 이 가운데 한 점이 202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인 3020만 달러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술품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절대 보물’로 평가받는 데다 아직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작품들이 남아있어, 만약 이날 본 달걀이 진품이었다면 김영석 동문의 인생은 그날로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황금빛 ‘이모탈 꽃(Everlasting Flower, Immortelle)’이었다. 이 꽃은 말린 뒤에도 형태와 선명한 색을 오래 유지해 ‘영원함’과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살바도르 달리의 아내이자 평생의 뮤즈였던 갈라가 유난히 사랑해 저택 곳곳을 이 꽃으로 채웠던 것으로 유명하다.

김영석 동문 부부 역시 과거 스페인 포르트리가트에 있는 달리의 저택을 방문했다가 깊은 인상을 받아 이 꽃을 잔뜩 사 들고 와 지금까지 집안을 장식하고 있었다.

성악가로서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김영석 동문은 “예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해” 젊은 시절부터 골동품과 예술적 소품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유학 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때에도 눈에 들어오는 소품을 발견하면 ‘큰 마음(?)’을 먹고 구입했고, 맨스필드 대학 교수가 되어 여유가 생기면서는 소장하는 골동품의 수와 가치도 점차 커졌다.

“그만 좀 사들이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이어질 때면 “연주가 끝난 뒤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허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옥션과 앤틱 샵을 찾았고, 그렇게 모인 골동품들이 어느새 집안 곳곳을 채우며 김 동문의 삶과 취향,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냈



김영석 동문은 음대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부인 조경숙씨는 대학병원 의사직을 은퇴한 뒤 부부가 1년에 거의 절반은 여행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 나중에는 앤틱 비즈니스 라이선스도 갖췄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날 필자가 본 것은 전성기 시절 소장했던 골동품의 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동문은 교수를 은퇴하면서 윌리엄스포트의 넓은 주택을 떠나 델라웨어 강변의 3층 콘도로 이사했고 그 과정에서 무겁고 덩치가 큰 골동품들은 대부분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후 김 동문 부부는 일년의 절반 가까이를 세계 곳곳을 다니며 거의 전업 여행가와 다름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계기는 김 동문의 안식년이었다. 2019년 안식년을 맞은 김 동문은 플로렌스와 파리에 각각 한 달씩 머무는 것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천천히 둘러보는 1년간의 인문학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자 아내 조경숙씨(이화여대 의대 75)가 “그럼 나는?”

이라며 과감히 대학병원 의사직을 내려놓고 남편의 여정에 동행했다.

초록빛 구름과 포도밭이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투스카니는 한 폭의 풍경화 같았고, 성프란치스코의 고향 아시시의 수도원에서는 깊은 평화를 만났다. 발길 닿는 곳마다 오랜 세월을 품은 유적이 경외감을 자아내던 로마의 나날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풍경과 역사 속에서 보낸 1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새겨졌다.

“세상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알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깨어난 듯한 기분이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기기에 체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부지런히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동문은 1년 후 교수직을 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남동쪽에 위치한 역사 깊은 도시 라구사의 건물 계단에 앉아 있는 김영석 동문 부부. 김 동문은 이 사진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낙타를 타고 있는 김 동문 부부. 맨 오른쪽 사진은 시칠리아섬 남서부의 고대 도시 아그리젠토에 있는 신들의 계곡.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유적지다.

➔ 퇴했고, 아내와 함께 본격적인 ‘여행가의 삶’을 시작하며 인생의 2막을 열었다. 실제로 김 동문의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mtenor54)에 차곡차곡 쌓이는 여행 사진들은 웬만한 전문가를 방불케 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다. 파타고니아의 페리토 모레노에서 거

기, 인도 타지마할 여행기 등은 모두 그가 발로 뛰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기록들이다. 김영석 동문 집 거실 한쪽 장식장 선반에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와 고대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브람스 같은 거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더 많은 세상 보고 싶어”
대학병원 의사였던 아내도 은퇴하고 여행 동행
14만 장 사진 찍다보니 전문가 수준 여행 사진
음악·역사 등 스토리 담은 여행기 쓰고 싶어

대한 빙하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는 장엄한 순간을 비롯해, 빙하가 빚어낸 뉴질랜드 남섬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태고적 원시림,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18층의 거대한 지하도시 데린쿠유 그리고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와 해식 동굴이 어우러진 몰타 코미노의 섬 풍경까지, 그가 렌즈 너머로 포착한 대자연의 거대한 숨결과 찬란한 역사의 흔적들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지금까지 그가 촬영한 여행 사진은 14만 장이 넘고 필요할 때는 드론까지 동원해 생생한 풍경을 담아냈다. 그동안 동창회보에 기고한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방문기, 말러의 여름 별장 3곳 여행기, 유럽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인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 방문

장 음악가들, 그리고 에머슨, 바이런, 쉴러와 호손 등의 문호에 이르기까지 문학, 음악, 철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인들의 크고 작은 흉상이 모여 있다. 이는 자신의 전공인 음악을 넘어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에 대한 그의 지적 관심과 취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컬렉션이다. “지금도 애독서인데 2000년대 초반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Bildung)’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독일의 문화학자 디트리히 슈바니츠가 쓴 책인데 유럽 문명의 뿌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방대하지만 간결하게 정리해 화제를 모은 책이지요. 여행 일정을 짤 때 그 책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책을 직접 써보고 싶습니다.”



거실 한 켠에 자리한 장식장에는 문학, 음악, 철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인의 크고 작은 흉상이 모여 있다. 김 동문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취향을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책을 쓴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직접 발걸음을 옮기고 렌즈에 담아낸 수많은 풍경 속에서, 감동과 깨달음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꿈도 자라났다. “생각해보면 여행이란 낯선 풍경을 눈에 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만의 이야기로 책을 펴낼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탈리아 나폴리와 카프리,

마테라 등지를 다녀온 김 동문 부부는 지난 6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에 참가한 뒤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 대자연 속에 머물며 하이킹을 즐겼고 8월 10일 3주 일정으로 스코틀랜드로 떠났다. 성악가와 교육자로 살아온 수십 년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여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낸 교양 여행서를 완성해 언젠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다정한 길잡이가 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한다. 글=신복례(인문대 83) 동창회보 편집장



(왼쪽부터)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기계식 저금통 매카니컬 뱅크, 18세기 앤틱 받침대에 올려져 있는 아르누보 브론즈 조각상과 러시아인 아이콘, 어린양을 안고 있는 17세기 예수 목각상, 프렌치 앤티크 태피스트리.

한국 증시 폭등, 적정 가치 평가인가 VS거품인가?



윤기향(법대 65)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
경제학과 교수 역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6월 4일 코스피는 2,770.84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6년 6월 19일 코스피지수는 대망의 9,000선을 넘어선 후 (9,052.42, 장중 9,385.59 기록) 6월 22일에는 9,114.55에 도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최고 수준을 찍었다. 2025년 6월 4일부터 1년 여 동안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무려229% (2.3배)가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같은 기간 57,800 (6/4/2025)에서 353,500 (6/22/2026)으로 512% (5.1배)가 뛰었다. 1년 여만에 주가지수가 2.3배가 뛰어오른 기록은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았던 그 어떤 투기 열풍도 지난 1년 동안 한국 주가의 폭등세에 비하면 모두 초라하게 보일 정도이다.

지금까지 ‘비이성적 열광’ (irrational exuberance)이 주가를 과열로 몰고간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 미국 주식시장에 몰아닥친 투기 열풍이었다. 대공황 바로 직전인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은 ‘포효의 20년대’의 마지막을 장식이라도 하듯 많은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1929년 약 1,000만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약 2년 전인 1928년 초 더우존스 주가지수 (DJIA)는 191에 달했다. 그때부터 다우지수는 불붙기 시작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약 1년 전, 그리고 다우지수 구성종목이 지금처럼 30개로 확대된 1928년 10월 1일 다우지수는 240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인 1929년 9월 3일 다우지수는 그때까지의 최고 수준인 381로 고점을 찍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7%가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1년 동안 미국 주가의 폭등세 (27% 상승)는 지난 1년 동안 한국 주가의 상승률 290%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미국의 대공황은 1929년 10월 28일 월요일에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갑자기 시작되었다.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미국의 주가는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대공황이 발발한지 약 2주일 후인 1929년11월13일에는 다우지수가 198까지 하락하며 처음으로 2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7월에는 다우지수는 41까지 떨어졌다. 1929년 고점에 비해 약 89%가 하락한 것이다.

지난 1년 간 한국 주가의 폭등세만 놓고 보았을 때 그 과열 양상은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립열풍 (Tulip Mania)에 비견할 만하다. 튜립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나 날개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화양연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주가 (특히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코스피의 거침없는 질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의 주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멧에 걸려 수 십년 동안 좀처럼 날아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한국 주가의 폭등세는 가히 경이적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6월 4일부터의 주가의 상승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용광로와 같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 역사를 새로 썼던 2026년 6월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9000 돌파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1년간 코스피 2.3배, 삼성전자 5.1배 급등 1929년 대공황 직전 투자 광풍은 저리가라 역사적으로 투기성 버블은 결국 꺼지기 마련

파동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투기성 거품 경제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는 네덜란드가 해양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시기였다. 네덜란드의 부유층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새롭게 소개된 튜립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었다. 터키에서 수입된 튜립은 아름다운 색상과 희귀성 때문에 귀족과 상류층의 애호품이 되었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빈곤층까지 전 재산을 처분하여 튜립 사재기에 뛰어들었다.

튜립 구근 하나가 숙련공이 버는 연간 소득의 10배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렸으며 가격 폭등이 정점을 찍었던 1630년대 중반에는 가장 희귀한 품종인 아우구스투스의 구근 하나가 현재 돈가치로 8만7,000유로 (약 1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그 당시 대저택 한 채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튜립 열풍은 1637년 2월에 순식간에 꺼졌다.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튜립가격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으며 풍선이 터지듯이 튜립열풍도 막을 내렸다. 튜립에 투자했던 귀족들은 영지를 담보로 잡혀야만 했다. 튜립열풍 이외에도 인류 역사상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투기 열풍은 끊이지 않았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East India Company)는 거대한 자본을 모으는 주식 제도를 탄생시켰으나 수익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투기 광풍으로 인해 근대 경제사에 거대한 투기열풍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무역회사이자 준정부

기관으로서 인도, 중국, 동남아를 대상으로 무역활동과 식민지 건설을 주도했다. 무역의 대성공으로 동인도회사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반 투자자들까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에 뛰어들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주식 시장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했다. 남해회사도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1711년 영국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회사 (South Sea Company)라는 회사를 설립해 아프리카 노예를 스페인 식민지에 공급하는 독점무역권을 부여했다. 1720년 투기 광풍이 불며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했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주가는 하염없이 추락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다. 그 가운데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있었는데 그는 전 재산의 90%를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파산의 쓴맛을 경험했다.

프랑스 정부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한 투기 열풍도 투기 광풍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1715년에 즉위한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당시 금융인이었던 존 로 (John Law)의 계획을 받아들여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경영하는 미시시피 회사 (Mississippi Company)를 설립했다. 로는 주식 공모자금으로 나라빚을 갚고 식민지를 개발해 이익을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루이지애나는 당시 미국 본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령이었다. 미시시피주식회사는 1719년 주

식을 발행했는데 공모가가 500리프르였던 미시시피주가는 1년도 안 되어 2만 리프르로 치솟았다. 존 로의 사업은 프랑스 역사상 초유의 투기 바람을 일으켰다. 졸부들이 대거 탄생했고 1백만 리프르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이때 1백만 리프르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백만장자’ (millionaire)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악명높았던 대표적인 투기 광풍을 살펴 보았는데 투기 광풍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버블은 결국 터지고 만다는 것과 투기 광풍에 참가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투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1년 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가의 폭등은 앞에서 살펴본 투기 광풍하고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가 상승은 실적 (market fundamentals)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금 한국의 주가 폭등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시장 기본가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AI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물결에서 핵심 산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 주가의 폭등세가 반도체 경기의 호황에 크게 힘입고 있다고 해서 한국 주가의 폭등세에 거품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주가가 실적을 반영한 적정 수준인가 아니면 거품 (bubbles)을 내포하고 있는 과열인가를 판별할 수가 있는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가-수익비율 (PER, price-earnings ratio)이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PER이 높은 주식은 PER이 낮은 주식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교한 투자이론으로 시장효율성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라는 모형이 있다.

이 이론은 현재의 주가는 시장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시장효율성가설 중의 하나가 현재가모형 (present-value model)이다. 현재가모형은 현재의 주가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익의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 수익은 시장기본가치 (market fundamental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장기본가치에는 개별 기업의 수익 가능성,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국가 경제의 기본체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미래 수익의 흐름 (또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 주식의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 경영대, 미주 첫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한다

서울대학교가 미주 한인 기업인과 현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USA)’을 내년 처음 개설한다. 서울대 경영대학은 1976년 시작된 한국 AMP의 50년 교육 노하우를 미국 현지에 접목해 미주 경영인 교육과 동문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 경영대학의 양홍석 학장과 임재현 경영연구소장, 김성열 팀장 등 방문단은 지난 7월 22일 LA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및 입학 설명회를 열고 오는 2027년 1월 개강하는 ‘서울대 AMP USA’ 과정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문단에 따르면 서울대 AMP는 지난해 100기를 맞은 한국의 대표적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으로,

내년 1월 ‘AMP USA’ 출범, 서울대 교수진 등 참여 한인 CEO 네트워크 구축, 수료자 서울대 동문 자격

로, 지금까지 64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정·재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내 최대 규모의 최고경영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양홍석 학장은 “서울대 AMP는 대학 본부가 아닌 경영대학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온 과정”이라며 “현지 경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대 경영대 교수진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 교수진이 참여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AMP USA는

미국 내 경영진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미주 한인 최고경영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AMP 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폭넓은 인적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해당 과정은 2027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총 60시간 이상 진행된다.

양홍석 학장은 “지난 50년간 축적한 AMP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미주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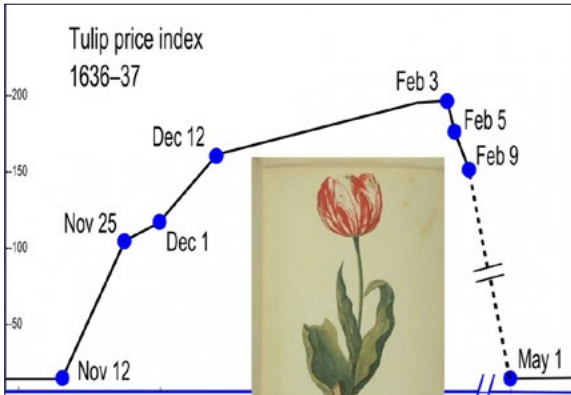
“AMP USA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경영자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내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과 현지 법인 및 사업체 경영진 등이며, 경영자적 역량을 갖추고 서울대 동문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료자에게는 서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입학 문의: 02-880-6910/6911, 이메일: wonder@snu.ac.kr

자본주의 투기의 역사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투기성 거품 경제로 평가받는 튜립 파동. 가운데 그림은 영국 남해회사 투기 광풍을 그린 그림. 1720년 영국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주가는 1월 주당 100 파운드에서 5월 700 파운드로 뛰어 올랐고, 6월 24일 1,050 파운드로 치솟았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린 재료들이 루머로 판명되면서 9월에 주가는 150파운드로 주저앉았다. 미시시피 버블은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국가 주도의 무모한 금융 실험으로 초래됐는데 미시시피 버블 당시 프랑스령인 루이지애나는 미국 본토의 3분의1에 달했다.

➡의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마한가지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현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거품을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현재의 주가는 시장기본가치를 반영하는 기본주가와 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품 부분이 클수록 주가는 요란하게 요동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주가의 고공행진은 거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현재가모형이 예측하는 주가의 경로와 현 주가의 차이가 거품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 거품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현재가모형이 예측하는 주가의 경로를 시계열자료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거품을 추산한 후 이 거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귀분석은 본 칼럼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과 관련된 통계 자료에 의존해서 거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주식 시장은 다분히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우선 1년 전의 주가에 비해 현재의 주가 (코스피) 수준이 229% (2.3배,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5.1배) 높다는 것은 그동안 저평가되어왔던 한국의 주가가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주가는 그러한 조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 (잠재적 성장율)이 현재

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적 성장율은 1%대에 머무르고 있다. 거기에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청년 실업의 만성화는 경제의 근육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들이다.

또한 GDP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비의 부진과 자영업의 침체, 투자의 정체 등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약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그에 따른 수출 증가에 의존하는 쏠림경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상승국면이 꺾이면 한국경제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에 노정되어 있다. 거기에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추격이 맹렬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한국의 우월적 위치는 영구적일 수 없다.

두 번째로 현재의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2.3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효율성가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1년 전에도 AI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그 당시에도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시장이 미래 수익의 흐름을 그렇게 높게 상향 수정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도 현재의 주가는 시장의 합리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가 상승율은 한국과 비슷하게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타이완과 일본의 주가 상승률과 비교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완은 한국보다 반도체 의존 경계가 더 심화된 산업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타이완의 종합주가지수 (TWII)는 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4/2025: 21,581.85 → 6/22/2026: 47,741.51).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보다 낮지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기초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는 86% 상승하는데 그쳤다 (6/4/2025: 38,837.46 → 6/22/2026: 72,353.96). 이러한 단순 비교에서 볼 때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주가상승율은 타이완의 주가상승율의 1.9배, 그리고 일본의 주가상승율의 2.7배에 가까운 상승율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의 주가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날개가 있다고 해서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Icarus) 또는 이카루스는 지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인물일 것이다.

이카로스는 위대한 건축가이요 조각가인 다이달로스(Daedalus)의 아들이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Crete) 섬에 미궁 라비린토스(Labyrinth)를 지은 인물이다. 크레타섬의 왕인 미노스(Minos)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Poseidon)의 도움으로 그의 형제들과의 왕권 싸움에서 이기고 왕이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은 제우스신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신이었다.

다이달로스가 미노스왕을 실망시킨 사건이 있었다. 미노스왕은 화가 잔뜩 나서 다이달로스를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궁에 가두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미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탈출을 시도했다. 다이달로스는 그의 아들 이카로스에게 너무 높게도, 또 너무 낮게도 날지 말도록 경고했다. 너무 높게 날아 태양에 가까워지면 태양열로 밀랍이 녹아 바다로 추락할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수분으로 날개가 잘 퍼지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그의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가 밀랍이 녹아 결국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말았다. 이카로스의 신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주가의 운명과 비슷하다.



Please join us as we celebrate the life of **Mr. Lawrence Yoon**, who passed away on July 13, 2026. The funeral arrangements are listed below.

윤철 로렌스 회장님께서 2026년 7월 13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다음과 같이 장례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연 도 : 7월 16 일 (목) 6:00 PM
Viewing Service
July 16, 2026 (Thur) 6:00 PM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

장례미사 : 7월 17 일 (금) 9:00 AM
Funeral Mass
July 17, 2026 (Fri) 9:00 AM
현성성당
St. Paul Chong Hasang Church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하관예절 : 7월 17 일 (금) 11:00 AM
Graveside Service
July 17, 2026 (Fri) 11:00 AM
성 찰스 묘지
St. Charles Cemetery
2015 Wellwood Ave.
Farmingdale, NY 11735

중앙 장의사
718-353-2424

윤철(문리대 정치외교학과 54) 선배님을 추모하며

지난 7월 13일 선종하신 윤철(문리대 정치외교학과 54) 선배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선배님을 회고하며 돌아가실 적의 몇 가지 주변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성당(퀸즈)에 다니며 때때로 고등학교 후배 부부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마련해주시며 우리를 챙겨 주시던 대선배님이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옛날 박정희 초기 정권 시절 고위 관료를 지내시다 정권 반대로 70년대 초 미국으로 피신한 뉴욕 초기 이민자이셨습니다. 플러싱 인근에 거주하는 후배들이 새해가 되면 세배를 드리러 Forest Hills(47년 거

주) 댁에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병환으로 고생하셨지만, 93세가 되시도록 치매 기운 없이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유족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정신이 혼미한 중에 어머니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90이 넘도록 사시면서도 남아 주신 어머니에 대한 정과 사랑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조문객으로 마땅히 오셔야 할 분이 오시지 않아 지인이 궁급한 차에 고등학교 동기이신 그분(장창하)께 연락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윤철 선

배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살아생전 그분을 포함해 절친한 세 분이 서로 약속하기를 서로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절친들 사이에는 그런 약속도 하며 서로의 마지막 생을 지켜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50여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오신 초기 이민자이자 대선배님의 돌아가심은 어쩌면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 몇 자 올립니다.

윤철 선배님을 추모하며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천병수(공대 70 · 뉴욕)

이창신(법대 57) 선배님을 추모하며

이창신(법대 57) 선배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고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정말로 슬픔입니다.

우리 법대 동창회에서 제일 충성스럽고 가장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은수 여사님과 함께 동창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동창회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화할 때면 늘 자애로운 말씀으로 격려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본교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환패하 기증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로스쿨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동문 간의 친목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시고 누구에게든지 베푸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친절이 몸에 배셨고 외유내강의 표본이셨습니다.

오호통재라! 생자필멸이요 인생

무상이라 하지만, 선배님과 이별은 아프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부디 화창한 미소를 띄우시고 그리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을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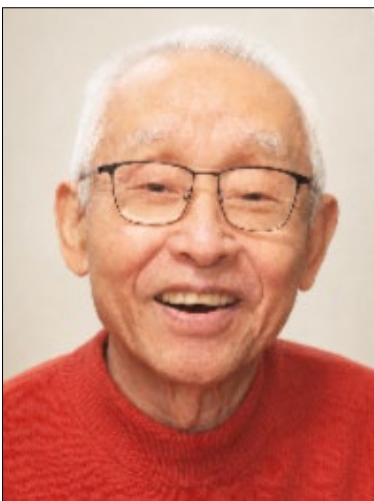
최진석(법대 64 · 남가주)

지난 7월15일 별세한 고 이창신 동문은 1972년 도미해 LA한인타운에서 남성 정장 양복점과 식품 판매 사업을 했으며 2019년 서울대학



교에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은장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고분자 가공 분야의 권위자 현건섭(화학공학과 55) 박사 별세



다우케미컬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며 최고 기술직인 Distinguished Fellow에 올랐고, 고분자 가공 기술 부문의 글로벌 기술 리더로 명

성을 쌓은 현건섭(화학공학과 55) 박사가 지난 7월 22일 별세했다.

고인은 다우 재직 기간 동안 13건 이상의 특허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탁월한 기술적 성취를 거두었으며, 인재 육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다우 내부의 명예로운 상인 제네시스 상(Genesis Award)을 수상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우에서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수여하는 ‘현건섭 상(Kun Sup Hyun Award)’을 제정하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고분자 가공 연구소(PPI) 소장, 뉴저지 공과대학교(NJIT) 연구 교수, 그리고 국내외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며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 또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제21대 회장을 역임하고, 부싯돌(Bushitol) Corporation의 회장 겸 공동창업자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도우며 글로벌 과학 기술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 과학기술처가 주는 대통령상, 한미재단의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상, 기술적 탁월함에 수여하는 브루스 매독 상(Bruce Maddock Award) 등을 수상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박정부 동문은 “현건섭 박사는 5년여 전 뉴욕에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사 오셨으며, 다우케미컬에서 28년간

함께 근무했고 은퇴 후에도 부싯돌에서 뜻을 모아 함께 일해왔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고인을 기리는 추모 예배는 오는 9월 12일 보스턴과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unhyunmemorial@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빛나는 지성에서 든든한 동행으로 함께 발전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contact@snuuaa.org

고전 읽으며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탐구하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 12차 정기 토론회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하멜 표류기』, 『로마법 수업』을 교재로 선정해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연봉원(문리 61) 동문은 작가가 『분노의 포도』를 통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작가 존 스타인벡(1902~1968)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Salinas)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뒤 작가의 길에 들어선 그는, 1939년 출간한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1940년 풀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스타인벡은 이후 196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1. 대강의 줄거리

이 작품의 주인공 톰 조드(Tom Joad)는 살인죄로 복역한 뒤 고향인 오클라호마로 돌아온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과 자본주의적 농업 정책으로 인해 소작농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가족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문을 믿고 캘리포니아를 향해 국도 66호선(Route 66)을 따라 떠나고, 작품은 그 여정에서 겪는 온갖 고난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하지만 어렵게 도착한 캘리포니아는 희망에 가득한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몰려든 유랑민이 급증하면서 대농장주들은 서로 결탁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제시했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보다 더 참혹한 생지옥으로 변해 갔다.

이 같은 현실을 깨달은 전직 목사 짐 케이시(Jim Casy)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펼치려 했지만, 농장주들이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살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는 유랑민들은 농장주들에게 매수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에 맞닥뜨린다. 결국 주인공 가족의 여정은 더 큰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2. 작품의 주제와 문학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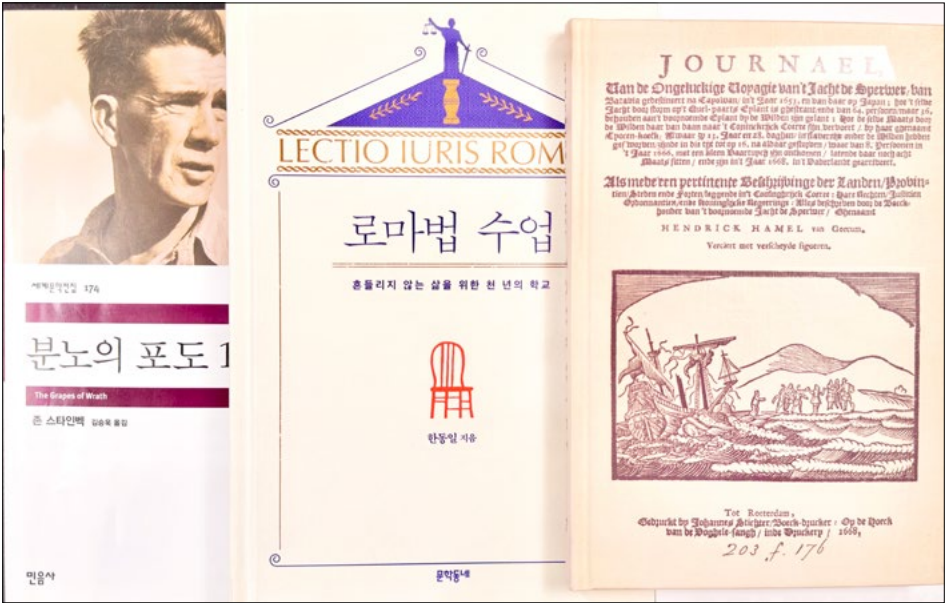
『분노의 포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위협받는지 보여주는 면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와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개인보다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며,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 중심의 의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윤 추구로 인한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한편, 인간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3. 이 작품의 현대적 의미

이 작품은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대표작이지만,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에도 만연한 빈부 격차, 난민과 이주 노동자 문제, 노동 착취, 주거 문제, 경제적 불평등 등을 생각하게 하는 작



지난 7월23일 제12차 정기 토론회를 가진 서울대 뉴욕 북클럽 회원들. 이날 모임에는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김영석 동문 부부와 뉴욕 동창회장 김병순 동문도 함께했다.



토론회 교재로 읽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하멜 표류기』, 『로마법 수업』 책 표지.

『분노의 포도』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 존엄성 『하멜 표류기』 조선과 서양을 잇는 13년의 기록 『로마법 수업』 법 속에 담긴 인간 사랑과 정의 진지한 토론과 배움으로 이어진 지성의 시간

내 마 조드(Ma Joad)는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한국의 어머니상을 떠올리게 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웅길(대학원 69) 동문은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발표했다.

『하멜 표류기』(1688) -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이 기록한 이 책은 17세기 제주도 표류 사건을 다룬 항해 표류기이다.

1653년 6월 18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선 '스페르베르호'는 자카르타를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무역 상관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8월 16일 제주도에 난파한다. 선원 64명 중 36명만 생존했고, 제주목사 이원진은 귀국을 약속했지만, 조선에 26년간 살았던 박연(벨테브레)은 효종의 뜻이라며 외국인을 돌려보낼 수 없음을 전한다.

1654년 1차 탈출 시도는 실패했고, 하멜 일행은 서울로 압송되어 훈련도

후인 1666년 9월, 생존자 16명 중 8명이 일본으로 탈출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무역 상관에 도착한다. 그러나 회사가 조선에서의 행방불명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당시 서기였던 하멜은 밀린 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것이 『하멜 표류기』가 되었다.

이 기록에는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 교육과 관료 선발 방식, 혼인 풍습, 군사 체계와 생활 모습 등이 담겨 있어 서양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 책은 1668년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해 일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다음 교재로 선정한 『로마법 수업』은 한인 최초 바티칸 변호사인 한동일 교수가 쓴 책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근대 역사학자 랑케가 "고대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들어 갔고, 근대의 모든 역사는 다시 로마의 역사에서 흘러

나왔다"고 말했을 정도로, 로마법에 는 인류가 시대를 초월해 추구해 온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이 담겨 있다고 소개한다. 로마법학자 폰 예링은 "로마는 첫째 무력으로, 둘째 그리스도교로, 셋째 법으로 세계를 세 번 지배했다"고 썼다.

첫 번째 순서로 이민경(미대 85) 동문이 정리 요약 발표를 했다. 로마법을 통해 범죄와 명예,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형벌의 의미를 살펴본다. 저자는 고대 로마의 법과 철학을 소개하면서,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제16장: Lectio XVI. 인류의 진보(Hominum progressus) 진정한 발전은 물질과 기술의 성장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인간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문명이 발전해도 사랑과 연대가 없다면 인간은 고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제17장: Lectio XVII. 로마의 형벌(Poenae Romae) 형벌의 목적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힘도 인간의 존엄을 넘어서 수 없으며, 법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로마법 수업』 두 번째 발제는 양균식(음대 82) 동문이 맡았다. 그는 여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려 했던 로마법의 정신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성평등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봉중(미대 84) 동문의 발표로 이어졌다.

제13장: Lectio XIII. Adulterium (간통죄) 간통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연약과 부부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설명한다. 성경은 혼인을 거룩한 계약으로 바라보며, 가정이 사랑과 신뢰를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제14장: Lectio XIV. Abortus (낙태)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존엄성을 지닌다고 가르치며,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생명으로 본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Culture of Life)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설명한다.

천흥규(상대 84) 동문은 제11장 이혼(Divortium) 및 간음과 성매매 관련 제약에 대해, 최형무(법대 68) 동문은 제5장 시종드는 노예에 관한 내용을 정리 발표하며 순서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발표회를 통해 북클럽 멤버들은 진리와 역사를 탐구하고, 인류 문명의 뿌리를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다음 제13차 정기 발표회(9월 24일)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리=신응남(농대 70) 북클럽 대표

시카고는 라비니아 파크, LA는 할리우드볼에서



지난 7월 18일 라비니아 페스티벌에 모인 시카고 동문들. 매년 여름 시카고 근교 라비니아 파크에서 열리며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7월의 뜨거웠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 좋은 여름밤,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음악동아리 회원 50여 명이 시카고 근교의 아름다운 라비니아 페스티벌(Ravinia Festival)로 모여들었습니다.

돌아보니 2018년 처음 음악동아리를 맡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동문이 부담 없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렴한 단체 티켓을 알아보고, 정성껏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하며 첫걸음을 뗐던 작은 모임이 어느덧 훌쩍 자라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층 많은 동문이 자리를 메워주어, 그 어느 때보다 온기 가득하고 활기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1904년에 문을 연 36에이커 규모의 푸르른 라비니아 파크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오랜 여름 안식처입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현재 마린 올삽(Marin Alsop) 지휘자가 음악 감독(Chief Conductor)을 맡아 예술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날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베

시카고 동문 50여 명, 라비니아 페스티벌 찾아 도시락 나누고 연주에 감동하며 우정 꽃 피워



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이었습니다. 2악장에서 가만히 흘러나오는 맑은 시냇물 소리, 그리고 나이트게일과 빠꾸기 울음소리를 모사한 목관악기의 정교한 선율은, 마침 울창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실제 새들의 지저귐과 장단 맞추듯 어우러지며 자연과 음악이 하나의 거대한 합창을 이루는 환상적인 순간을 선

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를 매혹시킨 또 하나의 주인공은 스페인 출신의 23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Maria Dueñas)였습니다. 세계 클래식계가 아끼고 촉망하는 이 젊은 거장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는 참석한 모든 동문의 마음을 깊은 울림과 감동

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번 모임이 이토록 풍성하고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묵묵히 마음을 더해주신 분들의 정성 덕분입니다. 50여 개의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시느라 애써주신 이동균 회장님의 수고는 물론, Mrs. 한경진 님, 김호범 동문님, 윤봉수 회장님, 황치용 선배님 부부, 전현일 회장님의 따뜻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동문들과 함께 자연과 음악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야유회를 위해 애써 주신 이영우 선배님과 준비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김호범 동문님의 정겨운 인사에 이어, “세대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웃고 즐기며 동창회의 진한 화합을 맛본, 그야말로 완벽한 한여름 밤이었습니다!”라는 한경진 선배님의 소감처럼, 이번 라비니아 나들이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잔향을 남길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마음 모아 함께해주신 모든 분과 마음 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글·사진= 이영우(문리대 66)



라비니아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 시카고 동문들. 맨 오른쪽은 올해로 8년째 동문들의 라비니아 페스티벌 나들이를 이끌고 있는 이영우(문리대 66) 동문.

“동문들과 자연 속 음악 즐기며 행복한 여름 밤”



지난 7월 4일 열린 할리우드볼 가족 야유회 및 콘서트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다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다.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이한 지난 7월 4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최한 할리우드볼 가족 야유회 및 콘서트가 25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문들은 화려한 성조기 문양의 식탁보로 단장한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이현림 행사위원장의 정성 어린 소개로 비치 보이즈(The Beach Boys)의 역사와 전성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안혜정 동문이 준비한 정갈한 애플파이, 동창회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남가주 동문·가족 250여 명 할리우드볼 야유회 마지막 10분 불꽃놀이는 잊지 못할 장관 연출

와인을 함께 나누며 여유롭고 따뜻한 야유회의 정취를 즐겼다. 오후 6시 30분, 다 함께 훈훈한 모습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 콘서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느덧 80대가 된 비치 보이즈 멤버들이 전설적인 명곡 ‘Surfin’ U.S.A.’를 비롯한 다채로운 히트곡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마지막 10분간의 불꽃놀이는 밤하늘을 성조기 빛깔로 환황하게 물들이며 잊지 못할 장관을 연출했다. 할리우드볼 행사는 해마다 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야외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총동창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남가주 총동창회 ‘차세대 어린이 위한 로봇캠프’ 성료

지역사회 공헌 사업 일환으로 주최 한홍택 동문, 로봇 지원·후원금까지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에서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어린이를 위한 일주일 로봇캠프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캠프는 재미한인과학자협회(KSEA, 회장 박보영) 및 서울대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백사훈)의 따뜻한 후원과 협력으로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봇캠프는 다가올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로봇과의 소통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를 높이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의 언어인 코딩의 기초를 배우고, 한홍택 박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햄스터 로봇을 활용해 복잡한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컵을 운반해 돌아오는 기록 경주도 펼쳤습니다.

첫 시도라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공대 심재호 동문님(지역사회 협력위원장)



남가주 총동창회가 지역사회 공헌 사업 일환으로 기획한 어린이를 위한 로봇캠프에 참여한 학생들과 자원봉사를 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오른쪽 사진) 양수진 동창회장이 로봇을 지원하고 후원금까지 기부한 한홍택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께서 열정적으로 기획과 지도 계획을 맡아주신 덕분에 캠프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차게 조교 역할을 해준 고등학생 Derek Moon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두 명씩 현장 안전 및 감독을 맡아주신 공대 백사훈 회장님, 점심을 후원하시고 배달까지 해 주신 공대 선배님들(박운섭, 신광



재, 김기수, 배재현, 임창희, 한홍택) 지역사회 봉사자 레베카 님, 송미선 총무국장, 이현림 사업국장, 정종현 선배님, 박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수학경시대회를 통해 로봇캠프를 사전 시연하고 홍보해 주신 재미한인과학자협회 박보영 회장님과 담당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동문님, 그리고 로봇 지원에 더해 \$1,000의 후원금까지 선뜻 기부해 주신 한홍택 박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글=양수진(간호대 80)
남가주 총동창회장

“길은 구글맵이 찾고, 궁금증은 AI가 풀어주고”

신복레 동문의 AI와 함께 한 동부 도시 한 달 여행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걸까? 하기야 원래 목적지였던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Niagara-on-the-Lake)’도 오늘 아침 출발하기 전까진 마을 이름은 물론 지구상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버를 부르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든든한 AI 친구들, 제미니(Gemini)와 챗GPT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호출하면 10분 안에 달려오는 우버가 잠시 후 도착했고 차에 올라탄 나는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를 향해 달리면서 제미니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왜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칼리지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내 실수였다. 그날 아침 나이아가라 폭포를 둘러본 뒤 제미니와 챗GPT에게 근처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둘이 한목소리로 추천한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는 캐나다 온타리오 호숫가에 자리한 빅토리아풍의 아늑하고 한적한 마을이었다. 사진만 봐도 아름다웠고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위해 구글맵에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를 입력했다. 같은 이름이 들어간 장소가 서너 개 났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맨 위에 나온 곳을 누른 뒤, 알려주는 대로 11번 버스를 탄 것이 화근이었다. 내가 가려던 곳은 다운타운 호숫가였지만 정작 내가 선택한 곳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나이아가라 칼리지였고 두 곳은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세상 정말 좋아졌다. 이제는 혼자 여행하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교통편을 몰라 헤매는 일도 거의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행지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구글맵을 보며 길을 찾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다. 방향치인 나 같은 사람에게서는 실시간 깜빡이는 화살표로 가야할 방향을 친절하게 보여주니까 한다.

게다가 AI 덕분에 혼자 여행해도 결코 심심하지 않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다가 제미니를 향해 한마디 던진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언제부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야?”

“1800년대 초중반부터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주요 계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678년 프랑스의 선교사 루이 헤네팡 신부가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폭포를 목격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서구사회에 존재가 알려졌다니, 1804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막내 동생인 제롬 보나파르트가 미국인 신부와 함께 이곳에서 신혼여행을 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상류층 사이에서 ‘신혼여행의 메카’가 되었다니 하는 제미니의 설명을 들으며 대화가 시작된다.

“나폴레옹에게 동생이 있었어?”

“네, 보나파르트 가문은 형제자매가 많기로 유명한데 그중 남동생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 4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럼 그 막내 동생은 어떻게 미국인 신부를 만났고 그 여성은 누구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대화는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아들, 다시말해 나폴레옹의 조카손자가 1908년 미국 법무장관을 지내며 FBI의 전신인 수사국을 설립한 ‘찰스 조지프 보나파르트’라는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선 신복레 동문. 제미니와 챗GPT는 이번 여행의 든든한 가이드이자 친구였다.

“구글맵·우버 덕분에 길을 잃어도 걱정 없고 AI가 있어서 혼자여도 심심하지 않았다
세상은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왜 난 아직도…”

이야기로 일단 막을 내린다. 어느 순간 내 눈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잇는 레인보우 다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레인보우 다리를 건너려면 1달러짜리 캐나다 동전을 넣어야 한다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 크레딧 카드는 안받니?” 그렇게 제미니와의 대화는 새로운 질문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다.

지난 6월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회에 참가하면서 행사 이후 동부 도시들을 돌아보는 한 달 여행을 계획했다. 사실 ‘계획’이라고 하기도 뭇한 것이, 정해진 거라곤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간다는 것, 그후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를 거쳐 LA로 돌아온다는 대략의 동선뿐이었다.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암트랙 장거리 열차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좌석은 다리를 쭉 뻗어도 앞자리에 닿지 않을 만큼 넓었고, 기차 안은 악명대로 추웠다. 하지만 식당칸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점은 좋았다.

뉴욕에서 워싱턴DC까지는 기차로 이동하면 된다지만 시카고에서 보스턴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며, 어디에서 묵을지,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고, “자세한 일정은 시카고행 기차 안에서 그리고 시카고에 가서 정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세부 계획을 미뤄둔 여행이었다.

함께 사는 아들이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8월초에 돌아올 예정이라 “그럼 이참에 나도 한달 여행이나 해볼까?” 즉흥적으로 결정한 여행이었고 미니애폴리스로 떠나기 전까지 해야할 일들을 처리하느라 여행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6월 28일 평의회가 끝난 뒤 미니애폴리스에 며칠 더 머물며 7월호 동창회보 제작을 마무리하고 7월 4일 시카고행 암트랙 기차에 올랐다. 이제 여행

일정을 짜야할 시간이었다.

우선 결정해야할 것은 시카고에서 며칠을 머물며 무엇을 할지, 그리고 보스턴에는 언제 무엇을 타고 갈 것인지였다.

사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번 여행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솔직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찌 보면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낯선 길 위의 시간을 원했던 것이기에 머물 장소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시카고와 보스턴을 택한 것이었다. 애초에 서두를 필요도, 꼭 가야할 곳도 없는 여행이었다.

그렇다고 시카고까지 와서 내 마음속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제미니와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여름이니까 시카고 심포니는 어디 서머 페스티벌로 자리를 옮겼을 테고, 오늘부터 10일 동안 시카고에서 열리는 공연들, 시카고 언론 검색해서 다 올려줘.”

잠시 후 화면에 뜬 ‘라비니아 페스티벌 그랜드 오픈’, 7월 11일 임윤찬의 라벨 피아노협주곡.’

“와우! 시카고에 와서 임윤찬의 라벨을 듣다니!” 임윤찬 광팬인 친구에게 카톡으로 ‘자랑질’을 좀 한 뒤 곧바로 티켓을 예매했다. 그렇게 시카고 체류 일정은 7월 12일까지로 자연스럽게 확정됐다.

혹시 이 대목에서 필자의 AI 활용에 감탄하는 동문이 있을지 몰라 고백하자면, AI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진짜 선수’였다면 아마 챗GPT에게 얼마짜리 좌석을 사라고 정해주고, 자신의 결제계정과 예매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티켓 구입까지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아직 챗GPT에게 정보 검색 일밖에 시키지 못하는 ‘AI 초보’다.

“아, 보스턴!” 시카고에서 기차로 무려 22시간, 하룻밤을 기차 안에서 보내며 1000마일을 달려야 하는 거리다. 사실 비행기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다. 직행 노선인 레이크 쇼어 리미티드가 지나가는 길목의 도시 몇 곳에서 내려 하루 이틀쯤 머물다 가면 어떻게 생각은 했다. 클리블랜드, 버팔로, 올바니? 아니면 톨레도와 버팔로, 스프링필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버팔로의 나이아가라 폭포였다.

글·사진=신복레(인문대 83) 동창회보 편집장

(『AI와 함께 여행하기』는 2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혼자 떠났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여행, “동문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길에서 시카고,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를 거치며 많은 동문 선후배님을 만났다. 기꺼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때로는 방까지 내어주시는 덕분에 편안하게 머물며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시카고에서는 이영우 선배님의 배려로 동문들과 함께 라비니아 페스티벌의 음악을 즐겼고, 보스턴에서는 최진민 전 회장님의 안내로 정선주, 박영철 선배님과 멋진 산행의 추억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다. 라비니아 페스티벌의 드넓은 잔디밭에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공연 전 식사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그들 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면? “이영우 선배님 감사합니다.”



왼쪽 맨 위는 미네소타 문성인 지부 회장과 박현아 동문 부부. 평의원회를 마친 후 그 맥에 머물며 7월호 동창회보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경황이 없어 함께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 그 옆은 필라델피아 김영석 동문 부부와 한 컷. 이어 시계방향으로 케네딕트 동문들과의 모임, 시카고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 만난 동문들, 그리고 케네딕트의 83학번 동문들의 모습을 담았다. 또한 보스턴에서는 최진민·정선주·박영철 선배님과 함께 산행을 했고 산행 후 식사 자리에는 정태영 선배님도 합류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이성숙 선배님을 비롯해 이종태 선배님, 박혜란·심희진 동문과 함께한 식사 자리도 담았다.



보스턴의 산을 구경하고 싶다는 나의 가벼운 한마디를 잊지 않고, 한국에서 막 돌아온 피곤함 속에서도 곧바로 산행길에 나서 주신 최진민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뉴헤이븐에서는 고 유시영 선배님의 사모님 유은주 여사의 주선으로 83학번 동문 2명을 만나 학창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수다를 떨었다. 남편이 만들고 키운 케네딕트 동창회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활성화시키고자 물심양면 헌신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절로 들었다.

마지막 여정인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김영석 회장님과 조경숙 사모님은 잊을 수 없다. 여행이 3주를 넘어가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필라델피아 방문을 망설였지만 가기를 정말 잘했다. 다정한 언니와 사람 좋은 오빠가 생겼다. 참으로 따뜻하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번 여행에서 동문들



을 만나 볼 생각을 하게 된 건 미네소타 문성인 회장이 건넨 한마디 덕분이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문이라는 인연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낯선 도시에서 이런 친절과 배려를 받을 수 있었을까. 혼자 떠난 길이었지만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만난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이번 여행은 내 삶의 한 페이지에 위로이자 선물로 기억될 것이다.

The Wedding Photograph

For 99 cents, I rescued my mother from Brooklyn

BY PATRICIA LIU

Patricia Liu - daughter of Philadelphia SNUAA member Hong-taek Chung (College of Commerce, Class of '61)-published a touching essay on Bestofkorea.com dedicated to her parents. Inspired by stumbling upon an old wedding photograph in Brooklyn that unexpectedly featured her mother, the piece reflects on family history and serendipity. Patricia Liu is a Korean American author and the founder of Best of Korea, where she writes about people, culture, and food.

My mother closes her eyes at the moment of the camera shutter. She has done it all her life without meaning to, and the result is a running joke in our family, that she does what she wants, not what she is told. My mother is a beauty. At a time when the average Korean woman stood five foot one, my mother was five foot seven, graceful and athletic. She hated to stand out, but with her height and good looks, there was nowhere to hide.

She comes from an old aristocratic family whose first names are dictated by a lineage book that goes back five centuries. She grew up in a village so dense with her own kin that her teacher was an aunt, the doctor was an uncle, and the children she played with were cousins, all of them Mins. Her father died when she was 12, and his young widow and seven children fell back on relatives. My mother, his favorite, was inconsolable. She learned, then, the sting of poverty, and the more particular sting of being poor among one's own kind: that the kindness of kin is always double-edged, that it must be received in a certain posture. She loved beautiful things that she couldn't afford, but she was proud, and had siblings who soon closed ranks, the older ones working so that the younger ones could study and attend college. As adults, they would be the ones handing out the charity.

She studied by candlelight, and passed the rigorous examinations that admitted her t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Seoul, which for a fatherless girl from Gimpo, was a feat that her village has never forgotten. It was at



college that she met my father, on a group date. He was not her assigned partner, but she caught his eye. Her assigned partner, who was also smitten, wanted to see her again. My father took him out for a talk, and there was, my father likes to tell us, a full night of drinking, negotiating, and pleading, before her partner finally relented and ceded his dating rights to my father. The two friends wer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mother might have ended up married to either. She has always been pleased that my father persevered. She soon learned that like herself, my father was raised by a single mother, and that as the eldest son, he and his future wife would need to care for his mother as long as she lived. She understood, and did exactly that.

In 1969, she married him at the YWCA. I know this because their wedding photo has the signage proudly showing at the top. I always wondered why they married at a gymnasium, but the YWCA in 1960s Myeongdong was much more than a place where people played basketball. The Korean War had flattened Seoul to rubble only a decade earlier, and the YWCA was a three-story beacon of modernity, especially for women's rights activism. In an era when ambitious college-educated women faced sharply limited career opportunities, and wives had no marital rights, it was a place where controversial topics such as banning concubine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were discussed and demonstrations organized.

In 1976, with the great wav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lready well underway, my parents, together with their mother and two small children, crossed the ocean and settled in Audubon, Pennsylvania, a middle-class neighborhood, in

a cookie-cutter colonial with a swimming pool, which was, for them, the precise version of the American dream they had come for. When my father's company offered to move us to the Main Line and help enroll my sister and me in one of the exclusive private schools there, my mother immediately dismissed the idea. She hated, more than anything, rich people who put on airs.

She is eighty this year. She is a doting mother of two daughters but never quite stopped mourning the son she lost, between us, late in a difficult pregnancy that left her bedridden for almost a year. She is now the grandmother of four grandsons, who adore her. She was, and still is for the most part, ferocious on a golf course. In the past few years, she has become more fragile. She missed her own eightieth-birthday party this year because of a sudden illness that made her afraid to fly. I had not been thinking about any of this on the afternoon I found her, more than half a century later, in a wicker basket in Brooklyn.

I had been in Williamsburg, instead, taking care of my son and his fiancée, who had food poisoning. By late afternoon the kids were starting to stir out of their stupor, and it was time for me to go back home to Manhattan. It was a beautiful day, and I was famished, so I took a detour for a bite to eat at L'Industrie, the famous pizza place I had been meaning to try, then noticed a charming antique store on my way to the subway.

The shop was the usual kind. Brass lamps. Lots of old chairs and tables. Cabinets I had no room for. Teacups in patterns that would have belonged to my grandmother if she were white. I moved slowly and savored this

time I had to myself. Near the register, on a low shelf, sat a wicker basket of old black-and-white photographs, the sort of basket I have always passed by in shops like this, wondering why people would buy photographs of other people's families. I cannot say what made me reach in.

About halfway through the stack I came upon a large black and white wedding photograph that had a familiar look to it. The YWCA sign at the top of the photo told me it must have been taken at the same wedding hall where my parents were married. A fun coincidence. The hair, the lapels, the careful arrangement of the wedding party told me it was roughly the same era. I scanned the faces of the guests for no particular reason. Then I saw a young woman in a flip hairdo, with her eyes closed.

It was my mother. Her clothes, in the photograph, are not really visible. But the hair is unmistakable, the curl turned fashionably outward at the shoulders, and so are the closed eyes. I quickly scanned every other face and recognized no one. I looked back at my mother. The photograph cost ninety-nine cents, \$1.06 with tax. I gave the cashier two dollars and told her to keep the change.

I sent the picture to my family that night. My mother wrote back nonchalantly that yes, it was her. No, she did not remember the wedding. The strangeness of the situation had not yet dawned on her. A day later she was intrigued and called her best friend from that period, who has a memory for these things. Her friend remembered the day. She was standing next to my mother in the photo, but her face was partially hidden. They worked together at Yukong ↗

조재성 동문의 두 도시 이야기



조재성(건축학과 77)
LA 포럼 회장·도시 비평가

서울과 LA의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절망을 말한다. 이 도시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나 가격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다.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이 도시의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보호의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되고 있는가?

LA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것은 시장이 실패해서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제도가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LA 주거지의 약 4분의 3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한 필지에 한 채’라는 100년 전의 결정이 공급의 길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렸다.

여기에 산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가 더해진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가벼워지니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고, 매물은 좀처럼 돌지 않는다. 환경심사와 공청회는 기존 주민에게 새 주택 건설을 몇 년씩 늦출 수 있는 사실상의 거부권을 쥐어 주었다.

이 세 겹의 장치를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다. 먼저 도착한 사람을 지키는 것. 장기 소유자와 기존 동네는

보호받지만, 그 비용은 젊은 세대와 새 이주자, 집 없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세기의 조닝 개혁’이라 불린 SB 9이 시행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열여섯 개 도시에서 만들어낸 새 주택이 112채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개혁은 서류 위에 머물렀고, 집값은 그 위에서 계속 올랐다.

그 반대편에 서울이 있다. 서울은 밀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계, 곧 조합과 시공사, 선분양과 청약이라는 장치를 반세기에 걸쳐 키워 온 도시다. 문제는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주택이기 이전에 자산이라는 데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수익은 현재의 용적률과 앞으로 허용될 용적률 간 격차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틈을 여닫는 손잡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계추처럼 방향을 바꿔 왔다.

공급이 정치의 시간표에 매이는 순간, 용적률은 계산할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기대와 베팅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기대는 집값에 미리 얹힌다. 여기에 전세라는 독특한 사적 금융이 겹친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의 손에서 이자 없는 매수 자금으로 바뀌고, 이 돈이 매매가와 전세가를 서로 밀어 올린다. 규칙이 자주 바뀌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순응이 아니라 방어, 그리고 한 발 앞서 베팅하는 것이다.

질병은 정반대인데 증상은 같다. 캘리포니아는 보호가 지나쳐서, 한국은 개입이 잦아서 같은 지점에 도달했다. 이미 도착한 사람을 지키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을 닫는 두 도시의 집값은, 시장 가격이라기보다 회원권 가격에 가깝다. 그리고 새 회원의 입회비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처방도 거울처럼 마주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풀린 규제를 도로 조이지 못하게

하는 주 차원의 일관된 법, 오래 놀러있을수록 유리해지는 세제의 교정, 그리고 종이 위의 밀도를 실제 건물로 옮길 수 있는 시공 생태계의 육성이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이미 강력한 이 기계를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 두는 일이다. 현재보다 올린 보유세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고, 용적률을 그때그때의 협상이 아니라 미리 공시된 규칙으로 운영하며, 전세가 서서히 물러날 길을 설계하고, 일본의 주택소비자조합이나 독일의 조합주택 같은 제3의 공급원을 키우는 것이다.

결론으로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두 처방이 깊은 곳에서는 하나로 만난다. 주택을 자산 축적의 회로에서 조금이라도 떼어내 사용가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규칙을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약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책은 하나의 가설이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직 이 도시에 도착하지 않은 다음 세대다.

서울에서 그 검증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언덕이다. 조합이 수백 명의 소유자를 하나의 개발 주체로 묶고, 용적률의 틈이 서류 위에서 돈으로 계산되는 동안, 그 서류 어디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 이미 도착해 살고 있었지만 끝내 회원이 되지 못한 이들도. 그들은 이주의 계절과 함께 떠난다. 문은 열리는가. 이 물음은 지금도 조합 총회가 열리고 이주 공고가 나붙는 서울의 언덕 위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매물 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남가주 지역 신축 주택단지 모습.

➔ Energy, and the bride had been a fellow secretary, an English major from Ewha Women's University. The groom, like my father, had come from Seoul National, and he too was considered a catch. Their courtship, she said, had been passionate, which in the vocabulary of that generation meant something more pointed than it does now.

I have been turning the photograph in my hands for days. Someone threw it away. A child, perhaps, going through the closet

of a parent who had died. A grandchild who did not recognize anyone. A cousin in a hurry. The picture passed through whichever hands it passed through and ended up in a wicker basket in Brooklyn, where I happened to be because my son had eaten the wrong thing the night before. If I had not stopped at L'Industrie. If I had taken my usual route instead of a pizza detour. If the basket had been moved to the back of the shop the day before. There are a great many ifs, and my mother survived all of them.

I think about the bride. I think about her grandchild, who may live a few blocks from my son's apartment and who may have donated a pile of old things she no longer had room to keep. I think about the photographs my own children will sort through one day. I think about the women of my mother's generation, who married in their twenties at the YWCA in Seoul to the proper sort of men, and who are now in their late seventies and eighties. The bride in the photo passed away some years ago, something we

learned from my mother's friend.

I put the photograph in a well-lit corner of my kitchen when I got home. My mother is in it, eyes closed. She is the most beautiful guest at the wedding. She is at the YWCA in Myeongdong and is not envious because she too will soon be married to her own Prince Charming whose friends were so many that they had to wrap around to the bride's side for the photo. She has no idea that her daughter will find her, more than half a century later, in a shabby basket in a borough of a city she has never lived in, for ninety-nine cents.

I think that young lady would like Brooklyn. An understated neighborhood that doesn't put on airs, a place where ambitious women don't have to be secretaries. She would like the pizza, and she would smile at the world around her, one where her soon to be granddaughter-in-law will recover from food poisoning and go back to her job running a billion-dollar AI business unit, with many young men reporting to her.



My mother and father, 1968, Seoul.



The wedding photograph discovered in Brooklyn, May 2026.

박상호 동문의 ‘가려진 책을 찾아서’

존 치버의 주머니엔 이야기로 빛어진 술이 숨겨져 있다

어린 왕자가 묻는다. “왜 늘 술을 마시고 있어요?”

주정뱅이가 대답한다. “창피해서 술을 마시지.”

어린왕자가 다시 묻는다. “뭐가 창피한데요?”

주정뱅이가 다시 대답한다. “술에 취해 사는 내 자신이 창피하단다.”

생 택쥐베르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왕자와 술주정뱅이 대화다. 술을 마셔야 하는 사만팔천구백오십일곱 가지 이유가 있다.

달이 슬프도록 기울면, 달이 벅차게 차면. 비가 무겁고 날카롭게 아픈 기억으로 떨어지면. 사막의 더위가 스스로 지치면. 정오의 태양이 유난히 눈부셔, 가슴 속 숨겨둔 나의 아픔이 슬며시 일어서면. 늦게 일어난 오후 갑자기 잃어버린 연인의 문자가 떠오르면. 젊은 하늘이 서럽게 화창하여, 나의 초라하고 흐린 얼굴이 대비되는 날이면. 나는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천성을 가져, 젊은 시절 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눈 앞에 펼쳐진 물로 뛰어 들었다.

사주에 물이 없어 물 근처에 살라는, 어떤 점쟁이의 말이 기억난다. 물을 가까이하라는 조언은, 물이 주 성분인 술을 밤새도록 퍼 마시게 하거나, 물귀신에 홀린 것처럼 물 속으로 뛰어 들게 만들었다.

술에 취해 한강에 뛰어 든 적은 셀 수 없으며, 낙산사가 보이는 한겨울 동해 바다에도, 낮 술에 취해 뛰어든 적 있다. 운전면허증도 없이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계곡 밑으로 떨어진 것도 여러 번이다.

여기서 그만 나의 철없던 어린 시절, 술주정뱅이 이야기는 접기로 하고, 알코올중독자로 유명한 소설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번 글에서 다루려는 작가는, 술을 생각하면 나의 머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설가다. 그의 연보 중 1973년도의 글을 빌려 온다.

1973년, 알코올중독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술을 끊겠다고 맹세하고 퇴원했으나,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서 일 년 동안 강의를 하다. 강사로 온 레이먼드 카버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일년을 보낸다.

사실 앞의 말은 거짓이다. 내가 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작가는 두 사람

이다. 그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떠오른다. 바로 위에 등장한 레이먼드 카버와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존 치버다. 두 명의 술주정뱅이 소설가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아이오와에서 함께 보냈을까!

한국의 작가들도 안식년이나 휴식기 동안,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 참가한다. 대학 캠퍼스가 작은 도시의 대부

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작가 존 치버의 <팔코너> 형을 살해하고 감옥에 수감된 대학교수가 주인공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인간의 나약한 이중성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

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끝없는 옥수수 밭이 펼쳐진다. 그곳에서는 조용하고 단조로운 시간이 지나간다. 들판에 서면 옥수수가 자라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했다.

그러니 두 작가는 얼마나 많은 술과 이야기를 했을까! 둘은 영미 문학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장들이다. 나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부럽다. 수많은 술판 중에 서도, 같은 관심사의 술꾼이 벌이는 난장이, 최고의 희열을 불러온다. 게다가 그들은 글을 쓰는 창작자들이었다. 둘의 글은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배다른 어미에서 태어난 듯, 글의 분위기와 서늘함이 닮았다. 여기서 존 치버의 마지막 연보도 훑쳐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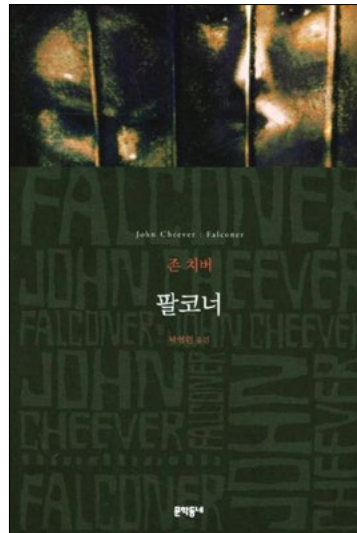
1982년, 3월에 마지막 장편 <얼마나 천국 같은가>를 출간하다. 4월 27일, 카네기홀에서 미국 예술아카데미로부터 문학 부문 국민훈장을 받다. “훌륭한 작품의 한 페이지는,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닌다”고 말한 그의 수상 소감에 대해 존 업다이크는 “그의 신념을 듣고

그곳에 모인 작가들이 모두 숙연해졌다”고 회고했다. 6월 18일, 암으로 사망하여 매사추세츠 노웰에 잠들다.

나의 서재에 있는 존 치버의 책들을 열거해 본다. <그게 누구였지만 말해봐> <사랑의 기하학> <돼지가 우물에 빠졌던 날> <기괴한 라디오> <팔코너> <블릿파크> <왓샷 가문 연대기> <왓샷가문 몰락기>. 이 중 처음의 단편집 4권은 10여년 전에 읽은 것으로 기억되고, 수년 전에 <팔코너>와 <블릿파크>를 읽었다.

사놓고 못 읽은 책이 백여권이 넘는 천성의 게으름으로, 마지막 두 권은 한번도 책장이 펼쳐지지 못한 채 책장에 꽂혀 있다.

‘교외의 체호프’라 불리면서 미국 단편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존 치버는, 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 ‘풍속 소설가’로 불리기도 한 그의 소설 대부분은, 동부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중상류층의 조용한 일상을 써 내려간다. 하지만 섬세하고 조용한 문체 뒤로, 등장인물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서서히 일어선다. 내가



존 치버의 장편소설 <팔코너>

그의 문장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시골길을 걷는 말굽이 튼실한 말들처럼, 아주 가볍고 경쾌한 리듬이 느껴진다.

모든 이야기와 인물과 배경은 바싹 말라서, 말발굽에 조용하고 나약하게 부서지고, 먼지처럼 흩어지며 공중으로 떠다닌다. 그의 문체는 인물들의 삶에 일어난 균열 사이를 헤집고 들어간다. 췌기 모양의 긴장은, 사건과 삶의 의미를 과감히 벌려 쪼개어 나간다. 그 결과로 대지와 대기는 술기운에 젖어 슬퍼하며 비틀거린다.

이제 그의 장편소설 <팔코너> 속으로 들어가 보자. 주인공은 대학교수이자 마약중독자인 패러것이다. 형을 살해한 혐의로 투옥된다. 팔코너라는 감옥은 배경으로 무겁게 흐른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교도소 밖의 일상에 대한 추억으로 물결친다.

감혀 있음은 열림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불러온다. 그래서 사물과 인연에 대한 추억은, 명상과 어우러지면서 무한히 넓은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밖으로의 울림은 교도소를 매체로 사방으로 울려 퍼진다.

악기처럼 울리는 교도소 생활은, 힘 들고 무서운 현실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한 약물 중독자들에게만 지급되던 메타돈의 힘일 수도 있다. 건더기가 없는 수프에 젓가락질을 하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지는 문체에서, 패러것은 끝없이 울부짖으며 방황한다. 작가는 추락한 인물의 끝없는 갈등과 인간의 나약한 이중성을 진열한다. 하지만 상실의 긴 행렬 끝에 희망을 감추어 놓는다. 물리적인 감금과 정신적 소외를 넘어, 인간에 대한 구원의 빛을 찾으려 한다.

P.S)

술꾼 소설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소설 이야기가 머뭇거렸다. 하지만 나에게 레이먼드 카버는 60 중반이 되도록 끊지 못하고 있는 술과 담배 갈아서, 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을 내려한다.

***박상호 동문(치대 80·샌디에이고)은 본업인 치과의사를 하면서 미주한국일보를 통해 시(2010년)와 소설(2012년)로 등단했다. 지난해 자전적 수필집 <사막 한가운데 책방>을 출간했다.

이원익 동문,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 출간

굴곡진 역사 주요 쟁점들 균형있게 조명한 역사 교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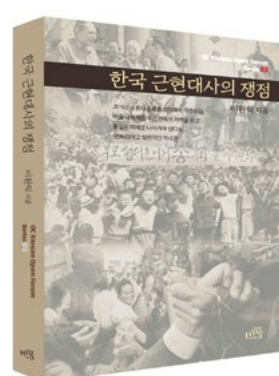
남가주 이원익(문리대 73) 동문이 최근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역사 교양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을 출간했다.

국사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한 이 책은 남북 간의 대립은 물론 남한 내에서도 첨예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한

국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칫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독자들이 역사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를 자처했다.

이 책은 오렌지카운티 한인 시사토론회(OCKOF: Orange County Korean



사의 쟁점' 시리즈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은 ‘조선과 대한제국은 왜 무너졌

Open Forum)에서 패널로 활동해온 이 동문이 2026년 1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격주로 총 10차례 발표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 시리즈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은 ‘조선과 대한제국은 왜 무너졌

는가’, ‘독립운동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풀어낸다. 조선 말기 망국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려 했던 노력, 다양한 독립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미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조명했다.

이 동문은 “저의 서툰고 어설픈 생각과 주장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시각에 작은 자극과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언젠가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된 나라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김학천의 세상만사 이야기



김학천
(치대 70·남가주)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50주년 기념일 아침. 91세의 존 애덤스가 매사추세츠 자택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토머스 제퍼슨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렇게 제2대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애덤스가 그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시각, 버지니아의 몬티첼로 저택에서 제퍼슨은 이미 몇 시간 전 세상을 떠난 뒤였다. 건국의 두 아버지는 같은 날, 독립기념일에 나란히 눈을감았다. 정확히 독립선언 50년 후에, 역사는 때로 이렇게 지나치게 극적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감동적인 것은 날짜의 우연 때문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걸은 길이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애덤스와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함께 만든 동지였다. 그러나 건국 이후 두 사람의 길이 갈렸다. 애덤스는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제퍼슨은 결사반대했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오늘날로 치면 공화당과 민주당만큼이나 다른 세계관이었다. 아이러니는 당시 헌법 구조에서 터졌다. 대선에

건국의 라이벌,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편지 보내며 앙숙에서 벗으로, 독립 50주년 기념일 나란히 눈 감아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보좌한 존 애덤스 부통령(왼쪽), 그리고 2대 존 애덤스 대통령을 보좌한 토머스 제퍼슨 부통령은 모두 재직 기간 중 대선에 나가 승리하고, 부통령 임기를 마무리한 뒤 바로 대통령이 됐다.

서 1위가 대통령, 2위가 자동으로 부통령이 되는 규정 탓에, 대통령 애덤스와 부통령 제퍼슨이라는 희한한 조합이 탄생했다.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4년을 버텨야 했다. 그러니 갈등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1800년 대선에서 제퍼슨이 애덤스를 꺾고 3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애덤스는 그의 취임식에도 나타나지 않고 새벽에 집을 싸 고향으로 가버렸다. 미국 역사상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 취임식에 불참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리고 이 불편한 동거의 경험은 결국 헌법을 바꾸게 했다. 1804년 수정헌법 12조가 통과되어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투표하되, 같은 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오늘날의 방식이 만

들어진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제도를 진화시킨 셈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애덤스였다. 1812년 새해 첫날, 그가 먼저 편지를 보냈다. 명분은 소박했다. 그저 오래된 벗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 그러자 제퍼슨도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편지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8통이나 이어졌다.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독립혁명을 회고했고, 철학을 논했으며 서로의 건강을 걱정했다. 서로 다른 신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역사가 판단한 영역이었을뿐 두 사람이 나눈 것은 논쟁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내면서 공유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가 오간 뒤 두 사람은 같은 날 눈을 감았다. 제퍼슨은 죽기 전 스스로 묘비명을 정했다. ‘독립선언문과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 여기 잠들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다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쓴 문장과 세운 학교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문장 중 하나가 바로 독립선언서의 핵심이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앙숙과 화해하고, 권력보다는 문장을 택하고, 라이벌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둔 두 사람, 그들이 살았던 방식이 어찌면 미국 민주주의가 250년을 버텨온 진짜 이유였는지 모른다. 2026년,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았다. 오늘의 미국은 어떤가.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현실을 살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애덤스와 제퍼슨도 세계관이 달랐고, 권력을 두고 다투고, 오랫동안 등을 돌렸다. 허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끝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 250주년을 맞는 오늘의 어두운 그늘이다. 250년 전 독립을 선언한 나라는 완성된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갈등을 품고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애덤스가 먼저 편지를 쓴 것처럼 그 약속은 언제나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서 그 편지 한 통이, 그 문장 하나가 250년을 버텨 왔음이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서울대 총장의 ‘근조 화분’

서울대학교 총장은 아무리 학사 일정이 바쁘더라도 해마다 한 번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를 찾는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가주에 거주하는 기부 동문들과의 만남이다. 대학을 묵묵히 후원해 온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다.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과 임원들도 이 오찬에 초청받는다.

수년간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오찬은 5년 전의 한 장면이다.

사회자가 한 동문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께서 오래오래 사셔야 서울대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겠다고.” 순간 좌중은 웃음바다가 됐다.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오찬장이 한순간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의 주인공은 이창신(법대 57) 동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유증(遺贈)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부동산을 처분해 전체의 40%를 서울대학교에 기부하도록 이미 법적 절차까지 마쳐 놓았다. 당시 서울대 뒤편은 약 120만 달러로 추산됐다. 사회자의 농담은 “오래 사실수록 부동산 가치도 올라 학교에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뜻을 재치 있게 표



현한 것이었다.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수줍게 웃었다. “별일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는 평생을 살아온 그의 품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필자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표정부터 달라졌

다. “기사는 절대 쓰지 말아 주세요.” 몇 번이나 거듭 당부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칭찬도, 박수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기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묻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병이 악화된 이 동문이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유족은 고인의 뜻이라며 조의금을 정중히 사양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의 삶의 방식은 변함이 없었다. 유희림 총장은 근조 화분을 보내 유가족을 위로하고 생전 그의 모교사랑을 추모했다.

미국 사회에는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라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 생전에 또는 사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적인 부호들이 참여해 왔다. 특히 워런 버핏은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공수래공수거’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빙 플레지는 어디까지나 도덕적 약속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반면 이창신 동문의 결심은 달랐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증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마쳤다.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약속한 대로 자동 집행되도록 모든 절차를 끝냈다. 기부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담보로 약속을 완성해 놓은 것이다.

누군가는 그의 재산이 세계 최고 부호들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부의 가치는 액수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담아 내놓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부이기 때문이다.

이 동문의 재산은 일론 머스크의 몇 십만 분의 1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부가 지닌 숭고한 의미와 올림은 결코 작지 않다. 오히려 수백 배, 수천 배 더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부한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물은 더욱 아름답다.

서울대학교는 훗날 그의 유산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다.

“별일도 아닌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의 겸손한 한마디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올림으로 남는다.

〈문리대 66, 편집고문〉

캠퍼스 나들이 가볼까요? ... 밥 먹으러

학내에 30여 개 식당 운영
1000원~6000원 메뉴 다양
예술계 식당에는 세계음식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생협은 학내에서 17개 식당의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숫자는 식판을 들고 이동하며 밥 반찬을 담은 배식형 학식과 개별 메뉴를 주문해 받는 주문형 학식을 아우른다. 생협 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학내 식당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두 배에 가까워진다. 특히 캠퍼스 중심에 있는 ▲학생회관(63동) ▲두레미담(75-1동) ▲예술계(74동) 식당은 식사 때만 되면 어김없이 재학생, 교직원, 방문객으로 붐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이라면 이런 풍경과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결제 체계를 보고 발걸음을 돌렸을 수도 있겠다. 세 학생 식당의 식단 특징과 이용 방법을 소개하고, 학생 식당의 옛 시절과 관련한 신문 자료를 살펴봤다.



학생회관 식당에서 재학생에게 판매하는 1000원의 식사. 외부인에게는 4000원에 판매한다.



‘학식’, 언제 어떻게 먹나

세 학식의 운영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회관 식당과 두레미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석식을 제공한다. 학생회관 식당은 기숙사를 제외하면 학내에서 유일하게 오전 8시부터 10시까

지 조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이다. 예술계 식당은 이들보다 중식 개시가 30분 늦고 석식 종료는 30분 이른다. 나머지는 같다.

그날의 식단표는 모바일 mySNU 초기화면 하단의 ‘식단’ 버튼을 누르거나 웹사이트 ‘식사: 서울대 식단 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일요일이면 다가오는 일주일 치 식단표가 이미 입력돼 있고, 각 식당 메뉴별 가격도 기재돼 있다. 다만 학생회관 식당을 비롯한 6개 식당은 현재 학교에 재적 중이지 않을 경우, 졸업생을 포함해 기재된 가격보다 1000원을 더 받는다는 생협 방침을 따른다.

입맛에 맞춰 찾는 학생식당

학생회관 식당은 가격대가 다른 두 가지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에게 ‘천식’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천원의 식사는 매 끼니 선택 가능하다. 반찬 서너가지와 주메뉴가 함께 나오는 정식은 6000원으로, 두 메뉴가 비교적 넓은 가격대를 이룬다. 최근 4일간 석식에는 수원왕갈비맛치킨, 갈비구이, 규동과 순대채소볶음, 낙지주꾸미덮밥이 올라왔다. 지출 부담과 식단 구성을 함께 고려하는 이에게 학생회관 식당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3일 방문한 두레미담에서는 식판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밥 칸에 볶음밥 대신 고기를 담아온 이들이 식탁마다 눈에 띄었다. 자율 배식제를 유지해 온 두레미담은 원하는 반찬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어 식사량이 많은 학생들에게 꾸준한 수요가 있다. 매 끼니 반찬 예닐곱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고기반찬의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매주 목요일 석식으로 제공되는 여러 파스타, 마늘빵, 수프의 조합도 확실한 애호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6주에 한 번 정도는 예외적으로 파스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미리 식단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음대와 미대 근처 ‘제2식당’을 철거한 자리에 2015년 예술복합연구동(74동)과 예술계 식당이 들어섰다. 예술계 식당은 각종 면 요리와 세계 음식이 주특기라는 평이 많다. 최근 5일간은 돈까스 김치우동, 직화 간짜장, 짬뽕 순두부, 토마토 해장 파스타가 제공됐다. 이곳에서 파스타는 대체로 가운데가 오목한 그릇에 담겨 나오고, 국물 요리는 뚜껑배기에 담겨 나온다. 메뉴에 따라 사용할 식기를 달리 정해둔 것은 다른 학생 식당과 구별되는 요소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예술계 식당은 비교적 정돈된 이미지를 일부 가져간다.

공교롭게도 이런 인상은 같은 자리를 지키던 제2식당 시절부터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17년 전 자료가 있다. 2009년 11월 19일 자 조선일보 ‘1989년 서울대 학생식당 밥값은’ 기사에는 당시 제2식당을 바라보는 서울대 학생들의 시선이 담겨 있다. ‘메뉴가 식판 대신 밥공기·국 그릇·반찬 그릇에 따로따로 담겨 나오며 ‘다른 학식당에서 구경하기 힘든 돈까스나 햄버그 스테이크 같은 육류가 나오곤 했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외 월급 받은 선배들이 “오늘 음·미대 식당에 가볼까”하고 큰소리치면 후배들이 우르르 따라나섰다’라는 일화가 같은 지면에 실렸다.

송민진 학생기자

서울대 QS 세계대학평가 38위

1위는 15년 연속 MIT
공동 2위에 스탠퍼드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6월 18일 발표한 ‘2027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는 지난해와 같은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QS는 전 세계 5000여 대학을 9개 항목으로 평가해 1500위까지 순위를 매긴다. 서울대는 학계 및 고용주 평판, 교수 1인당 학생 수, 논문피인용에서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외국인교수 비율(IFR)에서 11.9점, 유학생 비율(ISR)에서 25.5점을 받아 3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1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가 차지했다. MIT는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임페리얼칼리지 런던과 스탠

퍼드대가 공동 2위에 올랐다.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케임브리지대가 뒤를 이었다. 한국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43곳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중국(홍콩 포함)은 작년보다 18곳 많은 99개 대학이 포함돼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인도는 52개, 일본은 작년보다 줄어든 41개 대학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세계 30위권에 진입한 중국계 대학은 총 5곳이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베이징대가 14위, 칭화대가 공동 17위, 푸단대가 30위에 올랐다. 홍콩에서는 홍콩대가 11위, 홍콩중문대가 28위를 기록했다.

업소록 광고

남가주 | CA

부동산 : Team Spirit Realty 이종묘(간호대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기계 기술 전자 :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자동차 서비스 :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뉴욕 NY.NJ 의료 병원 :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필라델피아 PA 건축 : THA Consulting, Inc. 손재욱(가정대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시카고 CHI 주방 가전 : Magic Chef 조규승(문리대72) T: 630-238-0600 940N. Central Avenue, Wood Dale, IL 60191 salessupport@magicchef.com www.magicchef.com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24,971 (as of 01.25.2026)

*지난 회보에 게재된 금액은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의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일영 (의65)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중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화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홍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중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남가주-조용원 (문66)
남가주-홍성선 (약72)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북텍사스-강영빈 (문58)
북텍사스-이승화 (공03)
워싱턴DC-남육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박명근 (상63)
故박윤수 (문4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홍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용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김홍묵 (문60)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상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채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균희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룡 (의61)
제영혜 (가정71)
조한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종환 (사54)
한효동 (공58)
홍성선 (약72)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중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중 (의56)
김해암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우 (문69)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오용호 (의66)
윤인숙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량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형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옥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욱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욱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유현주 (문65)
진성호 (공64)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의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윤봉수 (간69)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제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헌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강연식 (사58)
공순옥 (간66)
권기현 (사53)
민흥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임필순 (의54)
윤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신성식 (공56)
주기목 (수의68)
최종무 (상63)

하와이
故최경윤 (사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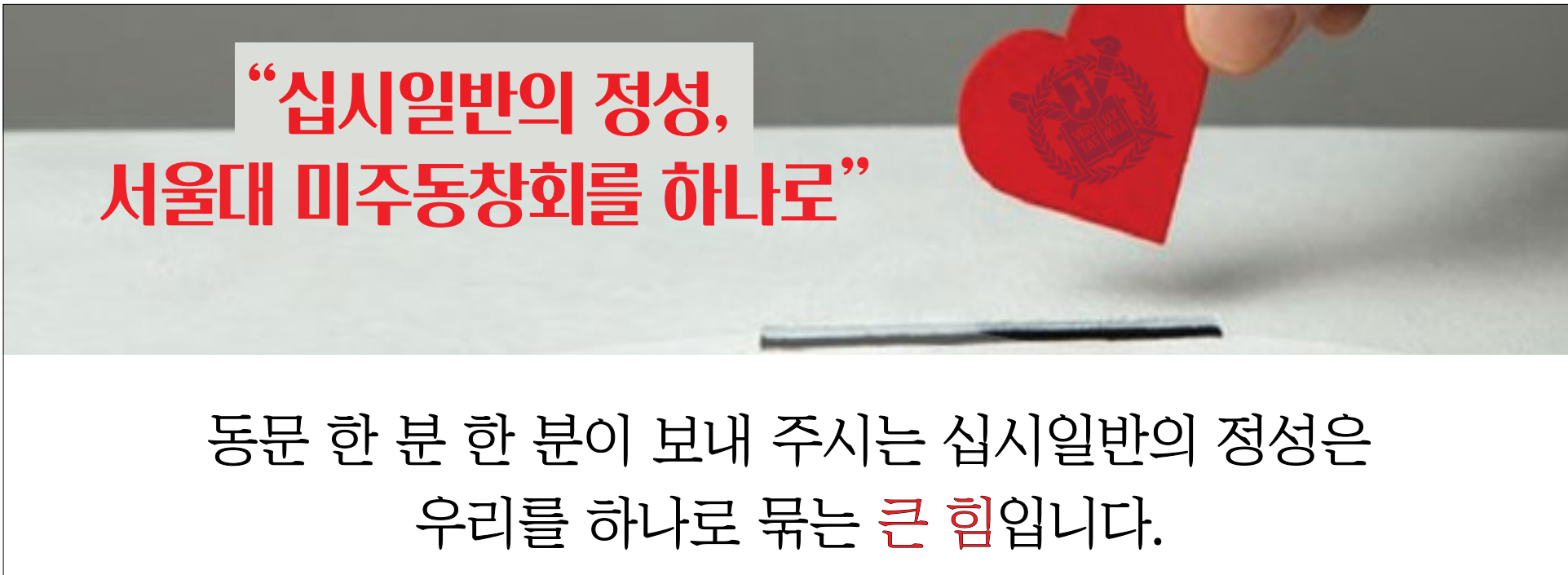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명숙 (농58)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수영 (사57) 김정복 (사55) 김종표 (법58) 김준식 (상75)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택 (공65) 김택수 (의57) 김태환 (의58) 김평우 (법63) 김학수 (공76) 김홍목 (문60)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시영 (사63)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중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백혜란 (미70)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성낙호 (치63) 손학식 (공61) 송명국 (인문8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신영찬 (의6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강훈 (치65)	이방기 (농59) 이법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연숙 (간76) 이용한 (공64) 이원익 (문73)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홍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동석 (문66)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전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귀희 (미68) 한정현 (치55)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국 (간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홍성선 (약72) 홍성애 (간60) 황건흠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웅 (미61) 권영국 (상60) 권영대 (공69)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육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중원 (사58) 김현중 (공63)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간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방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57)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웅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상65) 양경호 (공83)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재섭 (공65) 유은희 (간71) 유호우 (문71) 윤영섭 (의57) 이강욱 (공70) 이경림 (상64)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영희 (미68) 이용대 (약63)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창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홍우 (공50) 정동성 (상58)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종금 (간66) 허영자 (약63) 하륜 (법02)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문소 (수의61) 김옥동 (사58)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박종승 (의56) 송미자 (농62) 신정윤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임국희 (사92) 한서동 (의61) 현건섭 (음55) 룩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경홍준 (공19) 김권식 (공61)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성욱진 (치87) 손창수 (경영86)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효상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상길 (의65) 조병권 (공64)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진 (생과86) 북가주 강재호 (상57) 고범규 (공07) 권구형 (공98) 권석주 (공08) 권지혜 (미05) 권현오 (사13) 김갑균 (공60) 김교연 (문72) 김권규 (공14) 김규범 (경영07) 김수현 (공14) 김아린 (사회16) 김예린 (공07) 김종현 (공60) 김정운 (간90) 김지수 (경영11) 김푸른 (공15) 김현왕 (공64) 김호준 (공19) 남형욱 (자유12) 노경실 (외08)	노은지 (공07) 도연희 (생과93)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박은정 (공04) 박정규 (간76) 박정욱 (미96) 백경민 (공15) 부영무 (치72) 서유리 (음06) 서해승 (인05) 성은지 (인13) 손창순 (공69) 송수연 (간08) 송현영 (공99) 신규영 (공64) 신범준 (공11) 신평준 (공98) 안성호 (인99) 안호삼 (문58) 오태호 (공93) 온기철 (의65) 연평우 (공03) 위창호 (의67) 유호준 (공10) 윤성희 (사58) 음재훈 (화88) 이동희 (경영07) 이상민 (사회13) 이상현 (자11) 이수미 (문18) 이승훈 (경영01) 이정남 (공63) 이정현 (서양사96) 임승쾌 (문66) 임정란 (음76) 전병련 (공54) 정지선 (상58) 정준임 (간67) 정현준 (공04) 정한규 (의63) 지대형 (경영07) 최경선 (농65) 최홍규 (자전13) 추교진 (공03) 하성주 (공04) 한기용 (공89) 한상봉 (수의67) 한주연 (영13)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황지성 (공11)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이석호 (농78)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김민철 (약70)	오계환 (공64)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국경환 (경영12) 김동희 (공66)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정수 (문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박운기 (문56)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균 (문54) 심상구 (상64)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윤봉수 (간69)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영우 (문66) 이용수 (약51) 이재희 (치67)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조규승 (문72) 최희수 (문67) 한익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정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리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희백 (의55) 정영자 (사60)	최두환 (공83) 최준한 (농58)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준수 (공07) 김응환 (치88)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욱현 (경영84) 남춘일 (사69) 박상근 (법75) 박성희 (환경계획20)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변광록 (간72)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안민영 (경영0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성배 (수의57) 이승재 (공15)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상성모 (사67) 송용덕 (의5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헌 (공65) 최종진 (의63) 한영신 (가86)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중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 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배성렬 (화10) 이승화 (공03) 천양국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강준철 (사59) 고병은 (문55)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심영석 (공7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이성숙 (가정74) 전방남 (상73) 정덕준 (상63) 정홍택 (상61) 주기목 (수의68) 지흥민 (수의61) 조화연 (음64) 최종무 (상63) 최현태 (문62) 하틀랜드 구명순 (간66) 심정희 (음86) 윌리엄슨주희 (음89) 이주현 (미92) 정민재 (농70) 하와이 김용수 (농75) 안은식 (문55)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류유미 (약62) 박태우 (공64)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최성호 (문58)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2025.7.1~											
일반후원금		김권식 (공61)	41,000	박평일 (농69)	1000	워싱턴 DC		이상대 (농80)	250	정세근 (자연82) 500	
남가주		이희운 (농84)	100	서윤석 (의62)	200	이경애 (문58) 10,000		이승훈 (상74)	1,000	필라델피아	
김기형 (상75)	600	황효숙 (사65)	40,000	정평희 (공71)	200	테네시		이종묘 (간호69)	240	손재옥 (가정77) 240	
김상순 (상67)	300	미시간		캐롤라이나		권준희 (가정87) 100		이찬용 (치72)	500	지부분담금	
김영배 (미61)	200	고광국/고국화(공54, 56)		조철영 (의68) 200		필라델피아		이현림 (음81)	500		
김정상 (경제91)	300	오동환 (의65) 400		테네시		손재옥 (가정77) 5,000		정균희 (의64)	1,000	남가주 3,000	
김종표 (법58)	200	북가주		김경덕 (공75) 100		플로리다		최운화 (상78) 250	뉴욕 3,000		
박종수 (수의58)	3,000	황만익 (사59)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200		하기환 (공66) 1,000	뉴잉글랜드 1,000		
송명국 (인문81)	100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하선호 (치81) 250	로키마운틴 200		
신영찬 (의63)	200	임춘수 (의57) 200		손재옥 (가정77) 500		오석일 (의64) 200		한태호 (문75) 500	미네소타 550		
양은석 (음70)	200	시카고		이성숙 (가정74) 3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Duo America 300	미시간 300		
윤석철 (상60)	2,000	조규승 (문리72) 1,000		휴스턴		故유시영(문68) 10,000		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	북가주 1300		
이범식 (공61)	200	이용수 (약51) 250		진기주 (상60) 1,000		Brain Network 후원		아주여행사 500	북텍사스 550		
이병준 (상55)	10,000	서상현 (의65) 100		장학후원금		워싱턴 DC		SNU Foundation 5,000	샌디에고 550		
정예현 (상63)	200	최희수 (문67) 100		남가주		오인환 (문63) 200		OB 산악회 1,000	시카고 2,400		
정임현 (간72)	1,000	오레곤		김중섭 (문66) 10,000		광고후원금		Korean Dance Institute 125	애리조나 200		
한귀희 (미68)	2,000	박희진 (농78) 200		김홍록 (문60) 300		남가주		SNU 공대 500	알래스카		
황건홍 (공55)	200	오하이오		노명호 (공61) 10,000		강호석 (상81) 250		북가주		오레곤 300	
황현상 (의55)	200	故 정운행 (문53) 500		박원준 (공53) 500		김영도 (공67) 250		이경희 (인문83) 500		유타	
익명요청	1,000	조지아		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		김자성 (의79) 500		뉴욕		워싱턴DC 2,000	
뉴욕		성성모 (사67) 200		황현상 (의55) 100		김원탁 (공65) 240		석창호 (의66) 240		워싱턴주 800	
강에드워드 (사60)	700	워싱턴 DC		미네소타		김한신 (서양사92) 500		신응남 (농70) 500		조지아 800	
리준주 (음65)	500	강길중 (약69) 500		김권식 (공61) 10,000		김홍일 (치62) 250		신응남 (농70) 500		중부텍사스	
선종철 (의57)	200	권철수 (의68) 500		황효숙 (사65) 10,00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200	
신응남 (농70)	3,500	박상근 (법75) 1,000		미시간		박상호 (의65) 250		황효숙 (사65) 1,000		커네티컷 300	
조남찬 (사59)	300	워싱턴 DC		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		배재현 (공75) 500		미네소타		테네시	
뉴잉글랜드		워싱턴 DC		미시간		서동영 (사60) 980		황효숙 (사65) 1,000		필라델피아 1,000	
오세경 (약61)	3,000	워싱턴 DC		미시간		송미선 (음89) 500		시카고		플로리다 300	
윤상래 (수의62)	1,000	워싱턴 DC		미시간		신정식 (상64) 500		조규승 (문리72) 1,240		하트랜드 550	
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	워싱턴 DC		미시간		양은석 (음70) 125		워싱턴 DC		하와이	
미네소타		워싱턴 DC		미시간		이명선 (상58) 1,000		남욱현 (경영84) 1,000		휴스턴 550	
강순건 (문57)	1,000	워싱턴 DC		미시간		이병준 (상55) 1,000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aa.org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 \$ 200 ☐ \$ 500 ☐ \$ 1,000 ☐ \$ _____	☐ \$100 (7/2025~6/2026, 1년) ☐ \$100 (7/2026~6/2027, 1년) ☐ \$200 (7/2025~6/2027, 2년)	☐ \$ 3,000 ☐ \$ 5,000 실버 ☐ \$10,000 골드 ☐ \$50,000 플래티넘 ☐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 Full Size \$1,000 ☐ 1/2 Size \$ 500 ☐ 1/3 Size \$ 300 ☐ 1/4 Size \$ 250 ☐ 웹사이트(1년) \$ 500		☐ SNUAA 장학후원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 모교 발전기금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 \$240 (2026/7~2027/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업소 주소			업소 전화번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자부심을 이어, 미래를 만든다.

ELEVATING PRIDE. CREATING LEGACY.

여러분의 기부는
교육과 나눔,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Character illustrations by Storyset

■ Key Initiatives

EDUCATIONAL

차세대 인재를 위한 교육과 장학사업

CHARITABL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NETWORKING

세계를 잇는 동문 네트워크 구축

■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방법



QR Code

Check Payable to:

SNUAA USA |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 MN 55127

SPECIAL ISSUE

당신이 피워낸
서울대학교 기부의 꽃

기부3관왕



만만한 기부
만 명의 만원이 만드는 힘



샤인 기부
빛나는 당신을 위해



천원의 식사
한 끼는 든든하게



각자도 좋지만,
셋이면
기부3관왕



자세히 알아보기

매월 만원의 참여는 만만한 기부가 되어 큰 힘을 만들고,
반짝이는 응원은 샤인 기부가 되어 서울대를 밝히고,
따뜻한 한 끼의 마음은 천원의 식사가 되어 학생의 하루를 채웁니다.

세 가지 기부에 모두 참여하면, 기부3관왕이 됩니다.

JOIN NOW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NJ office
• Tel : +1-212-768-9144
• E-mail : michelle@klcpagroup.com

LA office
• Tel : +1-213-435-1974
• E-mail : america@snu.ac.kr

기부3관왕 달성시,
SNU기부3관왕 오르골을
웰컴패키지로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윤(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응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이승화(공) 세대간 소통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이희윤(농)

총무국장: 이소란(미)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편집디자인: 조준호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윤(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My Way 포럼 위원장: 장운정

AI Discovery Club 위원장: 한홍택 (공)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응남(농), 임현민(공),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현(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노상문(경)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47-5428	이메일 contact@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u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이영인 (사대 74)

T: (617) 329-1442

youngchungleee@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동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e234@yahoo.com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

루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조동건(법대 65)

T: dcho0806@bellsouth.net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엄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켄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2026 홈커밍 일본 온천 힐링 여행

JAPAN

YAMAGATA

황금빛 들녘과 영산의 정취, 고즈넉한 료칸의 온천까지
가장 깊은 일본의 가을이 야마가타 쇼나이에 있습니다.

주요 방문지

- 사카타 (酒田)
- 쇼나이 (庄内)
- 히지오리 온천 (肘折温泉)
- 초카이산 (鳥海山) / 하구로산 (羽黒山)
- 산쿄창고 (山居倉庫)



참가문의

최진석 (법대 64) | (213) 321-6428

조규승(문리대 72)



MCA offers a wide variety of products
to fulfill the needs at home and your business.

MAGIC CHEF®

norpole®

Magic Chef®
COMMERCIAL



940 N. Central Avenue, Wood Dale, IL 60191

Tel: (630) 238-0600 | salesupport@magicchef.com

Visit us at

www.magicchef.com